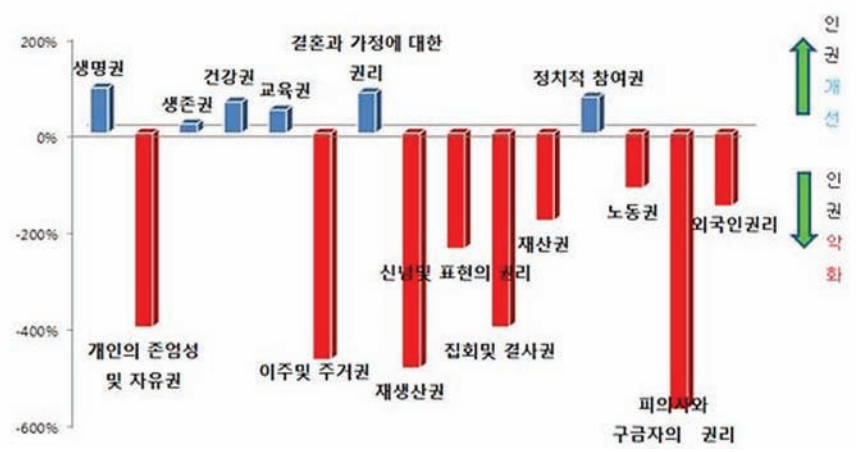
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October 13, 2016 Vol. 549

북한, 시민·정치적 권리 여전히 심각



북한인권백서 발간 10주년. 1990년대와 2000년대 북한 인권상황 비교현황 ©NKDB제공

[관련기사 8면에 계속]

성경은 '정확무오' 하다

리고니어선교회 설문조사…美 10명 중 절반만 동의

리고니어 선교회(Ligonier Ministries)는 최근 라이프웨이 선교회와 더불어 '2016 미국인들의 신학 동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하나님의 선하심, 죄, 구원과 성경, 천국과 지옥, 교회와 기관 등 6개 주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학적 신념을 다뤘으며, 교회 내 그룹과 기독교 신앙 밖에 있는 그룹 간의 비교를 위해 대규모로 진행됐다.

다음은 더가스펠코얼리션이 소개한 설문조사 내용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념

응답자의 절반 이상(66%)이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이며, 하나님께 실수란 없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 86%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응답자의 59%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데 동의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우 49%가 이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66%는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에 지속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 82%가 이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58%는 하나님이 성경을 지으셨다는데 동의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 72%,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경우 63%가 이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69%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 84%,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경우 74%가 이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66%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을 포함한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데 동의했다.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의 경우 48%가 이에 동의했다.

[관련기사 10면에 계속]

"빌립처럼 성령과 함께 하면"

조용기 목사, LA특별부흥성회 및 베데스다대 후원의 밤 참석





10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특별부흥성회에서 조용기 목사(오른쪽)가 설교하고 있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성령과 함께 한 50년 사역의 간증을 전하며 성도들을 권면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조용기 원로목사 초청 특별 부흥성회가 10일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조 목사는 "사마리아 복음 증거(행8:4~8)" 주제로 삼중축복에 대해 설교했다.

그는 50년 이상 목회·선교하면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간증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전인적 차원의 축복을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성령 충만의 증거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성령은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꿈과 비전의 사람,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미국을 변화시키고 이끄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라"고 격려했다. 조 목사는 사마리아에 도착한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적을 행하며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쳐 그 곳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도 그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도 조 목사는 설교를 마치며 치유와 신유의 기도를 했고 여러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선언했다.

조 목사의 기도 후 이어진 합심기도 시간에는 '순복음식 통성기도'가 이어졌다.

이 부흥성회는 월요일 저녁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8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채웠다. 행사 예정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었지만 이미 오후 5시부터 성도들의 입당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공립학교 성교육의 실제와 대안책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새라 김 사모 초청 세미나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엄규서 목사)는 '새라 김 사모(TVN-EXT설립자)를 초청, '공립학교의 문란한 성교육 실제와 대안책' 주제로 7일 오전 LA한인타운 내 한 식당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성공적인 성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새라 김 사모는 이 시대가 가치관을 왜곡시키므로써 청소년들을 혼란하게 하며 심각한 위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 즉 진화론을 들어 인간이 무목적이고 무가치한 존재로서 마치 동물인 것처럼 본능대로 살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낙태는 여성의 선택이라는 것. 실제로 미조리주의 경우, 낙태반대 운동에 사탄교가 법적으로 반대하며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방해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캘리포니아주(2015년)를 비롯해 오레곤주(1997년) 등 미국의 많은 주가 이미 안락사를 합법화함으로써 인간존엄성의 가치관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소년들의 높은 자살률과 정신질환 및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4면에 계속]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12월 15일(예비지원서[PRE-APPLICATION]은 11월 1일)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SBC 남가주한인교협 제36차 정기총회가 10일 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에서 열렸다.

제36회 SBC 한인교협 정기총회…신임회장 정영민 목사 선출

남침례회(SBC) 남가주한인교회협의회가 제36차 정기총회를 10일 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39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정영민 목사(포도원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지난 회기에 부회장으로 섬긴 정 목사는 회장에 단독 입후보했으며 별도의 투표 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회장에 당선됐다.

부회장은 사전 입후보자가 없어 총회 석상에서 후보로 추천받은 이상래 목사(미라클랜드침례교회 담임)도 투표 없이 박수로 부회장에 당선됐다.

또 총무에 민승배 목사(페이스채플 조은교회 담임), 서기에 반채근 목사(씨미밸리한인교회 담임), 회계에 박경호 목사(얼바인침례교회 담임)가 인준됐고 감사에 윤병준 목사(남가주뉴비젼교회 담임), 맹창호 목사(베이커스필드침례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신임회장 정영민 목사

정 신임회장은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장에 입후보 했다. 협의회 사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월례회를 현재보다 더 업그레이드 해 회원들이 목회 정보를 공유하고 치유받는 모임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회기 회장의 임기를 마친 정성오 목사는 "부족한 사람이 회장의 임기를 수행하며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회원 여러분 덕택에 오히려 감사로 마무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협의회는 내년에 아리조나에서 열리게 되는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에 남가주 지역 회원들이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협의회 목회자 주소록에 목회자 사모의 이름도 기록해 친목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에는 90개 교회와 이 교회 목회자들이 소속돼 있으며 15개 기독교 기관에서 사역하는 17명의 목회자, 38명의 명예 회원도 활동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백석 미주서부노회 제44차 노회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렸다.

백석 미주서부노회 제44차 노회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총회) 미주서부노회(노회장 박종진 목사) 제44차 노회가 3일~5일까지 콜로라도주 덴버 소재 세계선교교회(담임 김교철 목사)에서 개최됐다.

노회 첫날인 3일 저녁 개회예배에서 신관호 목사(은빛교회 담임)가 "나팔 소리를 듣자"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김교철 목사(세계선교교회 담임)는 성찬예식을 집례했다.

이어진 회무처리에서는 총회헌법 18개 항목에 대한 노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박정림 전도사의 메디컬과 메디케어에 대한 세미나도 열렸다.

4일에는 덴버 지역을 관광하는 시간을 갖고 김교철 목사의 안내를 받아 식물원 등을 관람하며 휴식을 취했다.

또한 노회 소속 교회인 덴버할렐루야교회(담임 김창훈 목사)와 예수사랑장로교회(담임 박향자 목사), 섬김의교회(담임 최요한 목사)를 방문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마음제자교회가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임직감사예배 드려

올해로 창립 16주년을 맞는 한마음제자교회(담임 곽부환 목사)가 9일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임직자를 세웠다.

곽부환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를 세워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로서 가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직식은 사당동 총신 84회 미주 동기 목회자와 CRC 교단 관계자 및 내빈들이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은혜롭게 드려졌다.

곽부환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임직감사예배는 정병노 목사(새일교회 담임)의 기도로 남승우 목사(One Hope Chuch 담임)가 '복음의 일꾼'(행20:22~24) 주제로 설교했다.

남 목사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마지막 고별설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것을 알았지만, 성령에 매여 하나님에 뜻에 순종했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진 직분자임을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권면했다.

이어진 임직식에서는 곽 목사의 인도로 새롭게 취임하는 시무장로, 명예장로, 안수집사, 권사에게 교리문답과 서약, 안수기도, 악수례, 공포를 통해 임직자를 세웠다.

권면을 전한 박세헌 목사(예수로교회 담임)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임직자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축사를 전한 김복진 목사(남가주서머나교회, CRC 한미노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면서 "죽을 각오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임직자들이 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당동 총신 목회자 84회 미주동기 목회자들이 특송을 선사해 은혜를 더했다.

이날 임직감사예배의 모든 순서는 권병록 목사(평화장로교회 담임)의 축도를 끝으로 은혜롭게 마쳤다.

이인규 기자

조용기 목사 LA특별부흥성회

[1면으로부터 계속] 특히 한인이 아닌 외국인들도 이날 행사에 다수 참석했는데 30여 명의 중국교회 성도들이 단체로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이 부흥성회는 교회 연합 행사가 아니었지만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원들이 단체로 참석하기도 했다.

조 목사는 올해 나이 80세로, 주치의가 장시간 비행을 만류했지만 이번에 LA를 전격 방문했다. 특별부흥성회 직전에는 나성순복음교회 EM 예배실에서 열린 베데스다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 후원의 밤에서 학교 설립자 자격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10일 성회 이후 조 목사는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켄터키주 루이빌 시 이반젤 월드 프레이어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CGIA(Church Growth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 컨퍼런스에 이영훈 목사와 함께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재미기독여성합창단 창단30주년 기념 음악회

10월 23일(주일) 오후 7시 30분…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재미기독여성합창단(단장 장영순 · 지휘 조한우 · 반주 조혜정)이 창단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
*장소: 윌셔연합감리교회(4350 Wilshire Bl. Los Angeles, CA 90005)
*문의 : 단장 장영순(213-255-6124)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써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949)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SUPER AUTO DENT BODY INC & AUTOTECH
Super Autotech
수퍼 자동차 덴트 바디&오토텍
www.superautodent.com
자동차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보험, 토잉, 렌트카까지 원스탑 서비스! (24시간 대기)
Mercedes-Benz BMW LEXUS Audi PORSCHE HYUNDAI KIA Ford HONDA ACURA
어떤 정비라도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오직 기술력과 참신한 서비스로만 승부하겠습니다!
유럽차 전문! 어려운 정비OK!
SUPER AUTO DENT BODY SHOP
SUPER AUTOTECH
T.323.730.1530 영업시간 : 월~ 금 (AM 8:00~PM 5:00)
233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18 (워싱턴 블루버드 + 그래머시 플레이스)
Washington Blvd
Arlington Ave
S Gramercy
S Western Ave
10 Freeway



임덕순 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GBC 신사옥 이전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GBC '선교와 섬김에 더욱 헌신'

신사옥 이전 후 첫 언론사 대표 간담회

미주복음방송(GBC, AM 1190)이 남가주 지역 언론사 대표들을 초청한 가운데 애나하임 신사옥 이전 후 첫 간담회를 열었다. 7일 오전에 열린 이 모임에서 미주복음방송의 임덕순 사장은 방송사의 재정과 방향 문제를 언급했다.

재정 문제는 미주복음방송 사옥 매각과 부채 청산에 관한 내용이었다. 임 사장은 "구사옥 매각은 채무로 인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1,050만 달러에 사옥을 매각하고 250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으며 그동안 미주복음방송이 갖고 있던 부채 750만 달러를 모두 상환하고 남은 돈으로 신사옥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신사옥은 융자를 받아 260만 달러에 구매했다.

임 사장은 "취임 당시 AM 1190 방송 스테이션 구매 시 발생했던 채무 등 여러 빚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정리했으며 오직 신사옥 모기지만 남았다"고 보고했다.

그는 "미주복음방송은 매달 6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대부분이 은행 이자여서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미주복음방송은 이번에 마련한 신사옥을 교계와 성도들, 지역사회에 개방해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 사장은 지난 1일 하루 동안 공개모금을 진행해 2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남가주, 타주, 심지어 한국에서도 소중한 헌금을 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미주복음방송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의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주복음방송이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속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앱을 업그레이드한다고 했고 청취자들과의 쌍방향성을 더욱 활성화할 전략을 내어놓겠다고 했다.

임 사장은 취임 당시부터 '선교하는 방송'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선교사들로부터 선교 현지의 소식을 듣는 '선교 25시'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미주복음방송의 특파원 선교사들은 선교지 소식을 청취자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매달 100달러의 헌금도 미주복음방송으로부터 받는다. 현재 선교 25시에 참여하는 선교사는 40개국의 80명이다.

한편 미주복음방송은 기독문화의 창달을 위해 CCM 경연대회를 오는 11월 12일 오후 7시 감사한인교회에서 연다. 예선은 10월 22일 오후 1시 방송국 1층 공개홀에서 열린다. 대상에겐 상금 2천 달러와 트로피를 비롯해, 모든 본선 진출자에겐 기념 음반 제작 등의 혜택 등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gb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하모닉 색소폰 앙상블이 조이피플교회에서 연주하고 있다.

조이피플교회, 특별한 손님들과의 아름다운 음악회

조이피플교회(공동담임 김성지, 이태종 목사)가 9일 주일 오후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교회로 초청해 아름다운 음악회로 보답하는 행사를 가졌다.

조이피플교회가 매주 빌려쓰는 미국인 교회인 홀리 크로스 루터교회의 성도들을 초청해 갈비 바비큐를 대접하고 색소폰 앙상블 연주회를 조촐하게 열었던 것이다.

교회 측은 "이날 연주한 하모닉 색소폰 앙상블은 찬송가와 가곡을 연주했다. 온 성도가 인종과 문화를 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되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냈다"고 전했다.

이 앙상블을 이끄는 나민주 목사는 성서장로교회 원로목사이며 서울대 기악과를 졸업한 클라리넷 연주자이기도 하다.

권 쉘비 기자

現存 老목회자의 애절한 遺書


장재효 목사.

1970년 5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산5번지에서 성은장로교회가 개척 설립되었습니다. 주변 거주민들의 훼방과 과격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정통한 말씀의 권능과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와 역력이 계속 이적, 기사, 축사, 치유, 회복의 역사 등으로 교회가 계속 부흥 성장하던 중 1990년 그 지역이 APT단지로 개발하게 되어 송파구 송파동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고, 교인들은 집을 팔거나 셋집을 뽑아 교회와 목자를 따라 대다수가 송파로 이주했습니다. 송파에서도 교회는 계속 부흥하면서 미국의 어느 주에 INTERNATIONAL GRACE GOSPEL MISSION을 등록, 7개월 만에 NON PROFIT ORGANIZATION 허가를 받아 오늘도 열심히 인류복음화를 위한 선교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간 10여 차례 당회장 장재효 목사가 고령에다 노쇠하다는 이유로 사임 선언을 하며, 젊고 유능하고 진리정통하며 성령 충만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후임목자를 세워 교회를 계속 부흥시키며 선교도 더 잘 할 수 있게 하자고 간청했으나 번번이 거절 당했답니다. 2016년 4월 초 Y병원에서 종합 진찰 결과 의사들로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사망선고 같은 진찰 결과를 듣고. 이제 주님께서 이 종을 천국으로 오라시는 TICKET으로 생각하고 46년을 이끌어 온 성은교회와 성은동산, 그리고 전 세계에 진행 중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4월 10일(주일) 밤새도록 성은동산 원장실에서 기도하던 중 새벽 3시쯤 갑자기 양떼 모두가 반드시 믿음으로 결실하여 천국에서 다시 만나 주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려야 한다는 애타는 당부의 글을 약 20분간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17일 2부 3부 예배 중 광고 시간에 "떠야 할 목자의 애타는 당부"라는 글을 호소하듯 낭독했을 때 교회는 통곡 바다가 되었고 모두가 그 유서를 복사해 가지고 외우며 스스로의 신앙 현주소를 점검하며 목자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이 부족한 종보다 훨씬 더 양떼를 사랑하시며 선한 목회를 힘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종이였기에 곧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생각할 때 두렵고 죄송하여 야단 치실 것을 생각하며 양 떼 중 낙오자 없이 모두가 믿음으로 결실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생복락을 함께 누리게 해 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떠나야 하는 牧者의 哀타는 當付

가는 牧者 잡지마오 아니갈 수 없는 天命 잡아본들 所用없어 마음들만 찢어질걸 半世紀의 긴긴歲月 聖恩敎會 품속에서 主任사랑 주고받고 幸福했던 牧羊之間 多情했던 우리 서로 헤어짐이 아쉽구려

喜怒哀樂 함께하며 울고웃던 지난 일들 世上살이 힘들수록 天國所望 가꾸라고 聖靈任의 異跡奇事 多樣했던 體驗들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聖靈任께 이끌리며 땅끝까지 힘을 다해 宣敎使命 堪當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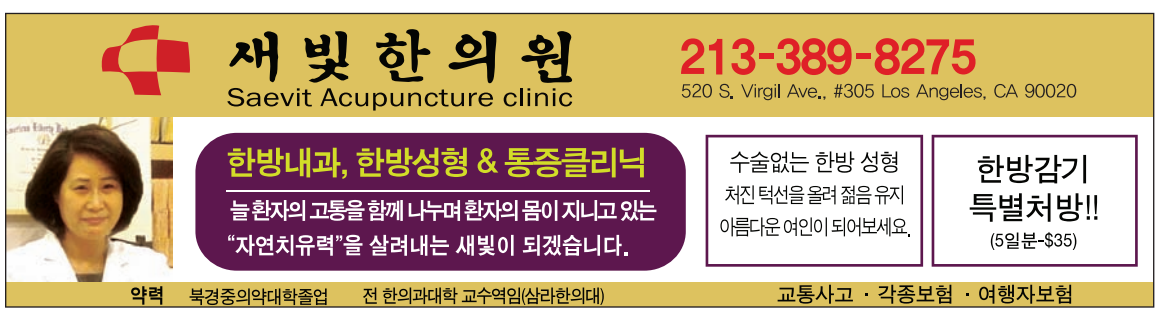
信實聖徒 再會기쁨 責任牧會 成果련만 不實信徒 失敗하면 牧者責任 어이할꼬 聖徒向해 웃는 牧者 天國기쁨 보여주나 主任앞에 通哭하는 牧者마음 미여지네 聖靈任여 저들마저 天國오게 하옵소서

사랑했던 사람들아 걱정스런 信徒들아 말씀위에 바로서고 聖靈任께 쓰임받아 救靈成果 넘치도록 主任王國 擴張한後 믿음으로 成功해서 天國에서 다시 만나 예수님의 품속에서 길이길이 幸福하길

牧者使命 다하고저 勞心焦思 했다지만 過分했던 聖徒사랑 부끄럽기 그지없고 信徒들의 期待마져 채워주지 못한채로 떠나야할 牧者마음 錯雜하고 罪悚할뿐 後悔많은 牧者마음 容恕빌며 떠납니다

사랑하는 聖恩眷屬 믿음으로 奮發하여 天國에서 다시만나 못다한情 나누면서 지난 날을 回顧하며 옛情 모두 되살리고 예수님께 敬拜하고 合心으로 讚揚하며 離別없는 天國에서 永生福樂 누립시다





LA 동부교협 특별 세미나


강사 : 한철호 선교사
– 전 선교한국 대표,
– 현 미션 퍼스펙티브스 대표

주제 1 선교적 교회 이야기

주제 2 한국 선교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역할

일시 : 10월 14일(금), 강의 1 : 오전 10시, 강의 2 : 오전 11시
(모든 순서 후 점심 식사 및 교제의 시간)
장소 : 유니온교회(김신일 목사), 교육센터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회비 : $10

목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 참석 여부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성 동부교역자 협의회

회 장 : 송재호 목사
부회장 : 김신일 목사
총 무 : 최준우 목사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TVNEXT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 김) 부부.

공립학교 성교육의 실제와 대안책

다민족연합기도회 LA설명회 시간도 마련

[1면으로부터 계속]뿐만 아니라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Prop. 64 합법화 추진을 통해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 법이 합법화되면 Hash Oil(마리화나의 유효성분)을 피우거나 먹는 것이 가능해진다. 빵, 음료수, 초콜릿 등의 음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가게 될 것이라고 새라 김 사모는 설명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마리화나 복용의 시기가 빠를수록 마리화나 또는 다른 마약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시기에 마리화나를 복용할 경우, 6명 중 1명이 중독에 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 번째로는 공립학교의 문란한 성교육이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 예를들어, 동성애자 강사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며 동성애를 찬성하는 학생들과 반대하는 학생들을 좌우로 나눠 줄서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소신있게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성경을 왜곡시킨 친동성애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오레곤주의 경우, 15세가 되면 부모동의없이도 성전환 수술이 가능해졌다며 날로 심각해져 가는 성문화의 혼돈 앞에서 휘청이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모는 가장 영향력이 크고 심히 타락한 사탄 문화와 친이슬람적 공교육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그 무엇보다도 심각하다며 이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사모가 설립한 TVNEXT에서는 그 대안으로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개강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tvnext.org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엘리야 김 목사(목사회 수석부회장) 인도로, 최순길 목사 기도(목사회 부회장), 엄규서 목사(목사회 회장) 환영사, 민승기 목사(OC교협 회장) 축사, 백지영 목사(목사회 증경회장)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JAMA대표 강순영 목사는 오는 10월 23일 에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다민족연합기도대회에 대해 설명하며 동참을 당부했다.

이영인 기자

게이트웨이신학교…남가주 시대 열다



게이트웨이신학교가 남가주 본교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남침례회 산하 6대 신학교 중 하나인 게이트웨이신학교가 본격적인 남가주 시대를 열며 6일~8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열고 축하했다.

6일 오전에는 새 캠퍼스 채플실에서 5백여 명의 교직원 및 내빈들이 함께 감사와 새 캠퍼스 봉헌의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는 학교가 위치한 온타리오 시의 시장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오후에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약학자 크레이그 에반스 박사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에반스 박사는 "고대 전기와 복음서의 신뢰성"이라는 주제로 AD 1세기 전후의 일반적 역사 문서와 복음서를 비교하며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을 설파했다. 이 강연 후에는 온타리오 컨벤션 센터에서 4백여 명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게이트웨이 갈라(Gateway Gala)가 열렸다. 찬송가 등 전통적 교회 음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키이스 게티가 이 순서를 맡았다.

8일에는 새 캠퍼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페스티벌을 열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인앤아웃버거와 음료수가 무료로 제공됐고 어린이들은 점핑 로프, 암벽 등반, 페이스 페인팅 등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1944년 북가주 베이 지역, 즉 골든게이트 지역에서 개교한 게이트웨이신학교는 골든게이트신학교란 이름으로 무려 8천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난 7월 골든게이트 지역을 떠나 남가주 온타리오로 이전하며 학교 이름을 게이트웨이신학교로 변경했다. 이 학교는 4년 전부터 남가주 브레아에 한영 이중언어 과정을 개설할 정도로 한인교회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에 본교 이전은 남가주 한인교계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주소: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문의: 714-256-1311, ext.124
*이메일: keb@gs.edu
*웹사이트: www.gs.edu

김준형 기자

조동혁 박사 칼럼 4

조동혁 내과/신장내과



널뛰는 혈압

필자가 혈압전문병원을 운영할 때도 그랬고, LA에서 내과 주치의로 활동하면서도 종종 보는 부분이 널뛰기를 하는 고혈압이다. 이는 혈압이 그때그때 차이가 많이 날 때를 일컫음이다. 예를들면, 한 때는 혈압이 105/60이었다가 다음에는 170/95를 하는 등 오르락 내리락 변동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유 중에서 흔한 것 중 하나가 일명 '와이트 코트 신드롬(white coat syndrome)'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병원에 왔을 때만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다. 꼭 병원만이 아니라 자신이 긴장을 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오르는 경우인데, 보통 20%에서 45%의 환자가 이런 '와이트 코트 신드롬'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주로 여성분과 노인층에서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고혈압으로, 합병증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혈압약을 주지 않고 관찰만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근래들어 이런 환자들도 조금은 혈압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서 좀더 조심스러운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긴장을 했을 때나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혈압을 쟀다 하더라도 그 숫자에 너무 민감해 할 필요는 없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차분해지고 편안해졌을 때 다시 혈압을 재봐야 한다.

이외에 병원에서 혈압을 쟀을 때에도, 병원 자체에서도 어느 날은 너무 낮고 어느 날은 높고 하듯 널뛰기를 하거나, 집에서 재는 혈압도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분들은 좀더 검사와 치료가 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내과학회지에 발표된 임상보고에 의하면, 26,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계속된 혈압을 28개월 관찰한 결과, 혈압이 15mmHg 이상 들쑥날쑥한 환자들은 심근경색증이나 중증의 심장병이 일어날 확률이 혈압이 꾸준히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30%정도 증가되었고 뇌졸중이 생긴 위험도는 46% 증가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런 분들의 사망률은 58% 증가되었다고도 보고되었다.

이 임상실험이 발표되기 전부터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 환자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들이 있는데, 동맥경화증이 심한 환자분들은 이렇게 혈압이 들쑥날쑥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혈압이 많이 들쑥날쑥 널뛰는 사람들은 신장의 기능과 초음파를 통한 혈관의 상태를 조사해야 하고, 혈관 건강과 수분조절에 대해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며, 콜레스테롤의 철저한 관리와 콜레스테롤이 특별히 높지않다고 하더라도 콜레스테롤약을 복용하여 혈관 관리를 해야 뇌졸중, 심근경색증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제16회 오네시모선교회 후원의 밤

"갇힌 자에게 사랑을"
10월 22일(토) 오후 6시

감옥사역과 재소자들을 위한 통신성경대학, 그리고 청소년 재활사역을 통한 영혼구원 사역에 헌신하는 오네시모선교회에서 선교회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메조소프라노 정희숙, 구현화 CCM 가수 등이 참여한다.
*일시: 10월 22일(토) 오후 6시
*장소: Cith of Buena Park Heritage Hall
*주소: 8150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문의 : 714-739-9100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제47차

임원 입후보 안내 및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추천 및 신청

01 후보자격 (협의회 정관 제12조)
1) 회장: 목회경력 10년 이상, 남가주 목회 3년 이상된 담임목회자
2) 수석 부회장: 차기 회기에 회장 자격이 있는 자
3) 부회장: 목회 경력 5년 이상, 남가주 목회 3년 이상된 목회자 및 현재 시무장로 및 시무권사로서 담임목사의 추천이 있는 자

02 제출서류
1) 이력서 2) 교단추천서 3) 목사안수증명서
4) 교회주보 5) 발전기금 6) 담임목사 추천서(장로/권사)
+ 발전기금(Cashier's Check)
회장: $5,000 / 수석부회장: $3,000 / 부회장: $1,000

03 제출기한
+ 2016년 10월 29일(토) 오후 5시
+ 공천위원회 서기 김영구 목사: (310)404-6219

04 공천위원회 모임
+ 일시: 2016년 10월 31일(월) 오전 11시
+ 장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

총회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세계성경장로교회(강신권 목사 시무)
주 소 :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전화번호 : (424) 257-8169
문 의 : 한대명 목사
전화번호 : (310)292-7788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회장 : 강신권 목사
서기 : 한대명 목사

니느웨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요나 4:1-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1. 요나 선지자에 대한 고찰(考察)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로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시대(BC793~753)에 활동한 구약시대 선지자로서는 최초의 이방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惡毒)이 내 앞에 상달(上達)하였음이니라(요4:1~2)"고 지시하셨으나 3절 이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도망갔으나 여호와께서 폭풍을 크게 일으키사 배가 파선될 때 사공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했으나 배가 더욱 위태롭게 됨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재앙(災殃)이 누구 때문인지를 가려 내기위해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잠언 16:33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했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이 재앙이 무슨 연고(然故)로 우리에게 임했는지 네가 밝히라 했을때 9절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敬畏) 하는 자"라고 말하고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줄을 그들에게 고하였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고 원망(怨望)어린 책망(責望)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에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 불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의 불행(不幸)은 말할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와 고통과 불안을 주게 되기 때문에 결국 불신자들로부터 원책(怨責)을 당하도록 만드신 답니다. 뱃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지겠느냐고 물었을 때 12절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해야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사형언도(死刑言渡)를 내리고 이 큰 폭풍(暴風)은 내 죄값의 결과라고 고백했습니다. 15절 이하에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는 곧 잔잔해졌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삼일삼야(三日三夜)를 지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40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합니다.

2장의 내용을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회개가 터져 나왔고 자기 영혼이 바다 밑바닥을 누비고 산뿌리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으나 죽지 않도록 생명을 붙들어 살리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며 죽을 힘을 다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육지에 토하게 하심으로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3장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던 요나를 큰 풍랑과 고기를 예비하여 회개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게하여 선지자의 선교 사명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2. 니느웨의 죄악상(罪惡相)

니느웨는 앗수르의 가장 큰 도시로 창세기 10:11~12에 보면 영걸(英傑) 니므롯이 건설(建設)한 성읍들 중 하나이며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규모가 가장 큰 도시로서 둘레가 96Km나 되었고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었으며 앗수르 전성기(全盛期)엔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BC 760년경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했었다는 기록이 앗수르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그 당시 앗수르왕은 앗수르단 3세(BC771~754)로 그 당시 인구는 남여노유(男女老幼) 약 60만이었다고 합니다. 요나 1:2절에서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시면서 요나에게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하셨습니다. 그 죄악들은 크게 3가지로 윤리적(倫理的)인 죄(罪) 주색잡기(酒色雜技)로 방탕(放蕩)했고 사회계층간(社會階層間) 강포(强暴)의 죄와 우상숭배(偶像崇拜)의 죄로 심판(審判)에 대한 사전(事前) 경고(警告)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실 예(實 例)로 앗수르는 나약한 왕들의 쇄국정책(鎖國政策)으로 국력이 쇠약(衰弱)해졌고 BC768년에는 6월에 일식(日蝕)으로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恐怖)에 떨게도 하셨으며 BC765년에는 전염병(傳染病)이 전국을 휩쓸어 인명(人命)과 가축(家畜)에 많은 죽음을 겪게도 하셨으나 그들은 도무지 회개할줄 모른채 계속해서 같은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대심판의 경고를 내리시게 된것입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3일길을 걸어야 통과할수 있을만큼 큰 도시인데다 막강(莫强)한 경제력(經濟力)으로 부강(富强)했으며(사20:4참조) 뛰어난 건축물(建築物)로 호화판(豪華版) 주거문화(住居文化)를 자랑했지만 역사(歷史)가 밝혀왔듯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부강하게 되면 음란방탕(淫亂放蕩)하거나 강포(强暴)로 객기(客氣)를 일삼게 되거나 부귀영화(富貴榮華)에 대한 상실(喪失) 불안감(不安減)때문인지 미신우상(迷信偶像)을 정신없이 섬김으로 멸망(滅亡)을 재촉(再促)하는 사례(事例)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죄악상도 예외(例外)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2. 요나가 니느웨 구원을 원치 않은 이유

오래도록 역사 속에서 여러차례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侵攻)했으며 사람들을 사로잡아갔고 재산을 약탈해간 앗수르의 대도시 니느웨를 구원해 주시려고 요나가 가서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심(內心)으로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滅亡)하기를 소원(所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에 처하여 회개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할 것을 서원했기에 다시 살아 나와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임으로 삼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3:3~4)" 했고 5절 이하에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왕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전적으로 애통(哀痛)하고 자복(自服)하기를 철저(撤底)히 했기 때문에 죄악을 떠나 악한 길에서 돌이킨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災殃) 대신 긍휼의 은혜와 용서로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편견(偏見)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 성을 떠나 언덕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명하게 되는 모습을 보자고 하면서도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仁愛)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줄을 알았다고는 하면서 4:3절에서는 "여호와여 원컨데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라고 오도방정을 떨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시며 6절에 "여호와께서 박 넝쿨을 준비하사 요나위에 햇빛을 가리워지게" 해주셨습니다. 요나는 박 넝쿨 그늘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은 다시 벌레를 시켜 요나가 그토록 기뻐했던 박 넝쿨을 씹어 버리게 하시니 박 넝쿨이 금방 시들어 그늘이 없어지므로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므로 요나가 혼곤하다며 스스로 죽기를 청하였다"했습니다. 요나가 구약 선지자들 중 처음으로 해외 선교 사역(宣教使役)을 감당하면서도 편견에 고착(固着)되어 선교지주민(宣教地住民)의 영혼을 사랑할줄 몰랐고 지나칠 정도로 자기육신(自己肉身)의 안일무사주의(安逸無事主義)와 이기적(利己的) 처세(處世)로 일관(一貫)하는 모습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도 특히 선교사들이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9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찌라도 합당하니이다"라고 했을 때 10~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培養)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하심으로 긍휼과 은혜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보시며 걱정하시는 것이 심판으로 멸망시킬 근심보다 회개시켜 구원해 주시려는 목적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이 지옥 형벌을 면케 된 감격적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눈물로 감사드리며 주변에 지옥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을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과 같이 영혼을 가장 귀하게 알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하면서 위험과 죽음까지도 불사(不辭)하고 복음(福音)의 제물(祭物)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사도행전20:24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하였고, 고린도전서 9:14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하셨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선교사명을 실천했을 때 니느웨도 살렸고 자신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장재효 목사 초청 영성집회

주제: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집회 일정

10월 2일(일) 라스베가스장로교회(조응철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임직예배 오후 5:00
10월 5일(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상명 총장) 수요 경건회 오전 11:00
10월 7일(금) SB 나눔장로교회(김영구 목사) 금요집회 오후 7:00
10월 8일(토) SB 나눔장로교회(김영구 목사) 토요집회 오후 7:00
10월 9일(일) SB 나눔장로교회(김영구 목사) 주일예배 오전11:00
10월 13일(목) 효사랑선교회(김영찬 목사) 주일예배 오전9:10
10월 14,15,16 (금),(토),(일) 하늘영광교회 (김성광 목사) 금요집회 7:30, 토요집회 7:00 주일예배 11:00
10월 17~20일(월~목) UBM교회(앤드류 김 목사) 부흥사경회 오후 7:30분
10월 21(금) 예수인교회(박정환 목사) 금요집회 오후7:40
10월 23(일) 좋은소식교회(이호우 목사) 주일예배 오전11:00, 오후1:30
10월 24~26일(월~수) 라스베가스 연합부흥회
10월 30일(일) 좋은소식교회(이호우 목사) 주일예배 오전11:00, 오후1:30

남가주지역 목회자 초청세미나

일시 : 10월 17일(월) 오전 10:30
장소 : 제이제이 그랜드호텔
후원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약력소개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신학연구 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Evengelical Seminary 명예박사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 성령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전국기도원 총 연합회 총재
- 성은동산(기도원, 경로원, 수양관) 원장
-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주 관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International Holy Grace Gospel Mission)
문의전화 : (213)739-0403, (213)718-1512

"유년주일학교 사역자를 모십니다"

본 교회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갈보리 장로교회입니다
"유년주일학교"사역을 사랑과 헌신으로 담당할
Part Time 사역자를모십니다.

유년주일학교

1. 자격요건
A. 신학교재학중 또는 졸업하신 분
B. 영어설교가 가능하신 분

2. 제출서류
A. 이력서 (사진포함)
B. 본인 신앙고백서

3. 접수안내
A. 보낼곳 : 이메일 12dchung@comcast.net
B. 마감일 : 2016년 10월 30일
C. 문의사항 : 정석표 장로 T(443)243~0061

갈보리장로교회
6800 Loch Raven Blvd., Towson, MD 21286
(담임목사 조 병래)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자격조건)
1. 담임목사 3년 혹은 부목사
5년이상 경력 있으신 분
2. 신 분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3. 기 타 : 한국어와 영어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가족사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2. 신앙 간증문 : 본인및 사모 가족소개,
성장과정과 신앙생활, 목회비젼과 철학
3.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CD 또는 DVD 2부
4. 추천서 2부(추천인 밀봉 후 날인요망)

(제출처)
LA HANMI CHURCH 청빙위원회
제출일시 : 2016년 10월 10일(월)~11월 5일(토)
전화 : T(626)444-0058-9
주소 : 2727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www.lahanmi.com

나성한미교회

•송재호 칼럼

김영란법과 그리스도인(벱전4:9)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최근 한국에서는 '김영란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과 대접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하였다 하여 "김영란법"이라 붙여졌으며, 2015년 3월 3일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한국인에게 있어 접대와 섬김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이다. 물론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중요한 법이기는 하지만 왠지 우리의 마음에는 이 법안에 관하여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오래전부터 실천되어 왔던 섬김과 접대의 모습과 "김영란법"의 반대적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이다. 그렇다. 우리 사회에서와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속에는 접대와 섬김의 문화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두 주체가 주장하는 섬김과 접대의 개념은 분명 차이가 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특별히 우리는 본문 2절의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라는 표현에 눈길이 멈추게 된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손님들을 여호와로 알아보고 맞이했을까? 모르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까지 헌신을 한 걸까? 궁금한 마음을 감출 수 없게 된다. 특히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란 말씀을 읽을 때는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스러지기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기꺼이 헌신을 하는 모습이 몸에 배려면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을까? 퍼주어도 받은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다가도 반사적으로 튀어나갈 수 있을 만큼의 헌신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살기를 어떻게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렇다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는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세상 속에서 행해지는 접대와 섬김에는 언젠간 그것이 충분한 보상과 대가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는 반면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접대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신약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적인 특징은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목록에 들어 있었고(딤전3:2; 딛1:8),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의 표현으로 후한 대접을 해야 함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다(롬12:13; 벧전4:9).

성경에서 "대접하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낯선 자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대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대가를 기대한다는 의미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사랑은 도리어 상처를 싸매어 주고 새로운 자아를 찾게 하며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한다.

이와같이 그리스도인의 접대와 섬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감동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나눠주신 사랑의 정신을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과 긍휼로 접대하고 섬길 수 있기를 다짐해 본다.

•정운길 칼럼(1)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정 운 길 선교사
실버선교회 국제대표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잊혀진지 오래되고 생소하지만 한국에서는 1월1일 새해가 될 때마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을 대문에 써 붙인다. 그리고 그 해가 무슨 띠의 해인가를 따라 덕담과 인사를 나누며 한해를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덕담을 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 출근할 때 자동차 운전석에 앉으면서 후미 거울(리어 밀러)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야! 00야 참 멋져! 너는 아주 훌륭하단 말이야!"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며 격려의 말을 하면 그날 하루가 기쁘고 행복하다.

독자들도 날마다 남들에게 따듯한 미소와 웃음을 제공하면서 기쁘게 살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기쁨의 삶을 연재로 전하게 됨을 필자 자신도 기쁘게 생각한다.

기쁨은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면 된다. 기쁨과 즐거움은 마귀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불충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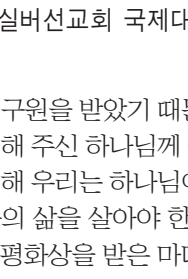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는 "마음 속 깊은 곳의 기쁨은 인생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했고, 600만 명을 울린 마지막 강의에서 카네기 멜른 대학 컴퓨터공학 교수인 랜디 포쉬 교수는 "삶을 즐겨라. 즐길수록 삶은 내 것이 된다"고 했다. 영국의 비평가이며 작가인 체스터튼은 "기쁨이야 말로 예수님의 본성이다"라고 예수님의 본성을 기쁨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핵심은 기쁨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를 통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2:10)하셨고. 성탄절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남겨주고 떠나셨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15:11)

주님은 재림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겠다고(요16: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재림하셔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기쁨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분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喜樂)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셨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다.

고난이 아름다운 이유



정기정 목사
샘물교회

고난이 힘든 진짜 이유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기 전까지는 비록 소박했지만 평온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후로 그의 인생은 고생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문제는, 그는 선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데, 세상은 그를 원수로 여긴다는 것다. 내가 무엇을 잘 못해서도 아니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 고난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첫째는 혈기를 꺾는 일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가 꺾일 때까지 기다리셨다. 젊었을 때는 왕궁에서 배운 최고 무술 실력으로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잡았다.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그 한사람 죽인 것도 감당이 안 되어 곧 땅에 묻고 본인은 숨어버렸다. 그랬던 그가 40년이 지난 후에는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 한 인간으로 자신의 한계를 파악했다. 고난을 많이 받으면 혈기가 꺾이고 겸손해진다. 이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세의 별명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이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다. 여기에서 쓰인 '온유'는 성격이 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길들여진 야생마의 강함'이라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완전히 길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난만이 이렇게 사람을 온유하게 만든다.

둘째는 마음을 다음어 주신다. 고난 없는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로 마음이 가득하다. 그러나 고난을 받은 사람은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주어진 삶과 시간,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한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한다.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목적과 쓰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시다. 한번 선택하신 사람은 그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기 시작하신다(롬8:27~29).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잠17)

마음을 다듬을 때에도 고난만한 것이 없다.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열방앞에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신다. 그래서 마음이 다듬어진 사람 옆에 가면 그 호흡만으로도 안식과 위로가 된다. 그러므로 애매히 고난 당하는 것은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각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고난을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한가지 더. 사람이 감당 못할 고난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다.(고전10:13)

구약에서 길을 찾다

Finding a way through the Old Testament

권혁승 교수 초청 구약 성경 세미나



강사소개 **권혁승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전 부총장)
엔게디선교회 지도목사
수정성결교회 협동목사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전)회장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영문과(B.A.)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Ph.D)

시간 및 장소*

10/22 (Sat) 10:00am - 5:00pm

at UBM Church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대상* 신학생, 목회 후보생

문의* 714-634-8360 / ubmchurch.com

신학생과 목회후보생 장학후원을 위한 공모전

세미나를 참석하여 강의를 들으신 후, 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분들에 한하여 권혁승교수가 직접 확인, 선별하여 아래와 같이 시상을 하며, 에세이 제출기간은 10월 22일(토) - 11월 5일(토) 입니다.

대상 (1명) : 승용차 (USED)
최우수상 (1명) : 장학금 $1,000
우수상 (2명) : 장학금 $500
특별상 (1명) : 노아의 방주 창조박물관 여행상품권 ($1,000 상당)
금상 (1명) : 아이패드 Air2
은상 (1명) : 톰 라이트 에브리원 주석세트 ($200 상당)
동상 (5명) : Gift Card ($20 상당)

주 최 : UBM UNITED BREAKTHROUGH MINISTRIES

후 원 : 기독일보 / Bliss 여행사



양 교단 관계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장 통합·기장 역사적 화해

예장 통합 이성희 총장 등…기장 찾아 故김재준 박사 '제명철회' 사실 알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를 설립한 故 장공 김재준 박사는 1953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제38회 총회에서 제명됐다. 그로부터 63년이 흐른 올해, 예장(통합)은 제101회 총회에서 김 박사에 대한 제명 결의를 마침내 철회했다. 그리고 두 교단의 현 총회장들이 만나 서로를 끌어 안으며 협력과 연대를 다짐했다. 역사적 순간이었다.

예장 통합 총회장 이성희 목사와 부총회장 최기학 목사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 있는 기장 총회본부를 찾아 지난 제101회 총회에서 있었던 故 김재준 박사에 대한 제명 철회 결의 사실을 알렸다. 기장측에선 이날 총회장 권오륜 목사와 부총회장 윤세관 목사, 장공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경재 목사 등이 나와 이들이 맞았다.

이성희 총회장이 해당 결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직접 낭독했다. 다음과 같다.

"본 교단(예장 통합) 제38회 총회(1953.4.24~28, 대구서문교회당)의 故 김재준 박사 제명 결의는 권징 없이 책벌할 수 없다는 헌법을 위반하고 총회가 제명 결의를 한 것이기에 제101회 총회(2016.9.26~29, 안산제일교회당)에서 故 김재준 박사에 대해 제명을 결의한 제38회 총회의 결의를 철회하기로 결의했다. 앞으로도 양 교단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연대 활동에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목사의 낭독이 끝나자 이 목사와 기장 총회장 권오륜 목사는 서로 뜨겁게 끌어 안았다. 함께 자리했던 이들이 박수를 보냈다.

이후 권오륜 총회장은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의 결정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비록 제38회 총회에서 서로 나뉘었으나 돌이켜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였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돼 그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 앞에 서 있다. 연대와 협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희망의 역사를 이뤄가자"고 화답했다.

이성희 총회장 역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기장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장과 예장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을 함께 해 왔다. 앞으로도 함께 하나님나라 확장에 힘썼으면 좋겠다. 특히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과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 다시 민족을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는데 협력하자"고 했다.

김경재 목사는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총회든 노회든 그들의 결정은 인간이기에 잘못이 있을 수 있는 시대적 산물이다. 이번(통합측의) 결의로 인해 장공이 하늘에서나마 기뻐하실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여러 교제와 선교의 단절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남을 마무리 하며 예장 통합 부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기장과 예장이 만나 서로 교제하며 지난 100년의 아픔을 씻고 새로운 100년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다"며 "이제 하나되어 민족과 세계로 향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김진영 기자

북한, 시민·정치적 권리 여전히 심각

북한인권정보센터…북한인권백서 발간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1면으로부터 계속]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인권백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 고통의 기억을 넘어 통일과 사회통합을 향한 기록으로"란 주제를 갖고 '북한인권백서 발간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10일 낮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북한 인권실태 비교분석이었다. NKDB는 "북한에서 가장 많은 인권침해사건이 보고된 것은 1990년대(20.6%)와 2000년대(55.9%)이나, 두 시기 사건 유형별 분포 비율은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2000년대 발생 비율이 높아진 인권침해 유형(1990년대 기준)에 대해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569.7%), 재생산권(484.5%), 이주 및 주거권(467.2%),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400.0%), 신념 및 표현의 권리(237.9%), 재산권(180.1%), 노동권(112.8%)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NKDB는 2000년대 발생 비율 낮아진 인권침해 유형(1990년대 기준)에 대해 생존권(19.4%), 교육권(48.1%), 건강권(64.5%), 정치적 참여권(74.6%),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83.6%), 생명권(93.6%) 등을 꼽고, "1990년대에 2000년대보다 생명권과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에 대한 권리 침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많이 발생했으며, 2000년대 이후 감소되거나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존권은 1990년대 1,576건이 보고되었으나, 2000년대는 306건만이 보고 되어 생존권 위협은 상당 수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명권은 2000년대 들어 보고된 사건은 2,527건으로 1990년대 2,700건보다 다소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줬고, 2000년대 이후 인권침해 사건 증가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는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5.6배 증가), 재생산권(4.8배), 이주 및 주거권(4.6배),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4.0배) 등이 있었다. NKDB는 "결과적으로 2000년대 이후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은 개선되고 있으나,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NKDB는 "2000년대 이후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호전되고 시장을 통한 식량과 필수 생활용품 구입이 용이해져 국제인권 A규약(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상당한 인권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에 대한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국제인권 B 규약)는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야기 했다.

한편 NKDB는 2003년 설립 이래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백서, 북한종교자유백서를 포함한 보고서 발간, 국내외 세미나 개최 등의 연구· 학술 활동과 정착지원본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및 고문피해자 상담 등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다각화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의 현실을 조사, 분석 한 북한인권백서를 2007년부터 발간 개시한 이래 총 103,610건의 인권피해정보를 담은 10번째 "2016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홍은혜 기자

군선교 교역자 '계약직 군무원'으로 전환하자

북한사역…사람을 키워야 한다

군복음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는 군종목사와 군선교 교역자의 파트너십은 효과적인 군선교 사역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군선교 교역자는 1990년대 이후 활발한 진중교회 건축 운동에 따른 대대급 교회의 증가로 부족한 교역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국방부 훈령 제정으로 적극 유입되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현역 장교인 군종목사는 262명이며 민간인 신분의 군선교 교역자는 이보다 2.4배 많은 총 642명(전담 426명, 비전담 216명)으로 나타났다.

6일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는 MEAK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회장 이종윤 목사)가 군종목사와 군선교 교역자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하기 위한 제16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열어 군선교 사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날 이종윤 목사는 "신학은 몸의 뼈와 같아서 꼭 필요하다"며 "우리 군선교는 신학을 든든히 세우고 그 앞에서 날마다 성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군선교사역(군종목사와 군선교 교역자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파트너십 강화 방안과 군선교 교역자 제도 혁신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군선교 교역자 제도 혁신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한 군선교연구소 정책분과장 정재원 군종목사(육군3군단 기린대교회)는 협력선교를 위해 '계약직 군무원 제도' 제안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그것이 군선교 교역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분야인 군내 신분보장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지희 기자

한반도 통일을 앞두고 한국교회 통일사역자들의 역량을 모으고자 노력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를 알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자 한 자리에 모였다. 11일 낮 숭실대에서는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센터장 하충엽 교수) 주관으로 통일사역단체 지도자들이 모여 '목회자 통일준비포럼(Insight Forum) 컨설테이션'을 개최했다.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담임)의 인도로 열린 개회예배에서 이철신 목사(영락교회, 센터 실행이사회 의장)는 '느헤미야서' 본문의 설교를 통해 "북한사역을 하면서 결론은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동포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곳에 가는 사람, 그런 헌신자들을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에는 60여 개 이상의 교회와 통일사역 관련단체들의 지도자들이 모여 토의했다. 센터 측은 "복음통일을 성취할 사역자들을 준비하는 것이 비전"이라 밝히고, "선교의 황금시기인 '통일의 때' 북한복음화를 효율적으로 이루고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이 포럼의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홍은혜 기자




단장 : 장영순


지휘 : 조한우


반주 : 조혜정

특별출연

소프라노 : 지 경

특별출연

바리톤 : 정재혁

2016. 10. 23(일) 7:30PM
윌셔연합감리교회
4350 Wilshire Blvd, LA., CA 90010
주관 : 재미기독여성협의회
주최 : 재미기독여성합창단
공연문의:(213)255-6124 장영순 단장



1.5세 출신 신학자인 캐더린 안 교수가 이날 발제했다. UC데이비스와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현, 게이트웨이신학교)를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교회사로 Ph.D. 학위를 받은 그는 현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기고 있다.

여자 잠잠하라 해 놓고 동역자 다수는 여자?

미주장신대…여성 사역자의 진로와 역할 세미나 개최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특히 여성 사역자들의 진로는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가? 남녀평등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교회 사역 구조에 대해 캐더린 안 교수가 답했다. 그는 "남성과 싸우라"거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라"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부터 회복하라"고 주문했다.

3일(현지시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회와 CWMM(Center for Women in Minister and Mission)이 공동으로 "여성 사역자의 진로와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질의 응답 시간에 참여한 여성 사역자들.

세미나에서 "초대 교회와 여성"을 주제로 발제한 안 교수는 교회 역사학자답게 예수님 시대부터 사도 시대, 교부시대까지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했다.

그는 "기록과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여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는 물론 유대교와 비교할 때에도 기독교나 신약성경에서는 여성에 대한 언급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 시대에 인간으로 취급받지조차 못했던 여성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만나셨다.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 심지어 구절을 '여성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란 것'이라 해석한다면, '여자는 잠잠하라'고 말했던 당사자인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동역자들을 언급하는데 다수가 여성인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그 동역자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존재인 뵈뵈는 여성이지만 집사였다. 그 당시 집사는 현재의 장로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언급되는 브리스가는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이름이 나온다.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헬라 원문에 따르면 사도로 일컬어지는데 이 중 유니아는 여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미나에서 질의 응답 시간에 참여한 여성 사역자들.

안 교수는 "예수님은 들판이나 호수, 길거리에서 사람만 있으면 말씀을 전하셨다. 여성들도 조직이 없고 건물이 없던 초대교회 시대만 해도 활발히 사역했다. 그러나 후기 교부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황제의 교회, 정부의 교회, 힘과 조직을 갖춘 교회가 되면서 성직자 중심의 교회로 변했고 여성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성별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다.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된다. 왜 남이 하는 사역을 보며 따라 하려고 애쓰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치를 확인하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승리자가 되자"고 격려했다.

안 교수의 발제 후에는 다양한 실제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었다.

베델한인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는 박종희 전도사, 뉴욕프라미스교회·감사한인교회에서 수십 년간 부목사로 섬기고 은퇴한 한정자 목사,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선교무용과 교수이자 전문 무용가인 손문미 선교사, 청소년 선교단체 글로벌유스의 김윤희 대표, LA씨티교회의 써니 김 담임목사 등이 여성으로서의 독특한 사역을 소개했다.

사회는 조직신학자이자 여성신학자인 리폼드대학교의 조진성 학장이 맡았다.

김준형 기자

창녀들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시대에서는 파격 중의 파격이었다.

1.5세 출신 여성 신학자의 거침없는 촌철살인은 계속 이어졌다. 안 교수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에는 늘 여성이 있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15-16세로 추정되는 가녀린 소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고난 받으실 때 십자가 아래에 있던 자들도 여성이었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도 여성이었다. 이런 순간들 가운데 남성들은 도대체 다 어디에 가 있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여성들로부터는 웃음이 나왔고 남성들은 멋쩍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에 대해 "그 시대 고린도 교회를 소란케 하던 여성들에 대해 바울이 경고한 것이지 이 구절을 갖고 여성들의 사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A,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Awana 오후 8:00(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배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배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영상예배) 9:30am,11:30am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美캠퍼스 대학생들. ⓒ미국 IVF 홈페이지

동성애자 직원 해고?

美IVF 해고설 부인…소문일뿐 사실무근

타임지는 최근 미국의 대학생 선교단체 IVF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직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IVF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은 맞지 않다. IVF의 어떤 직원도 동성결혼에 대한 관점 때문에 해고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IVF가 성경적인 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한 범위는 원래 '신학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IVF 그레그 자오 부대표는 "IVF는 4년 간의 과정을 마무리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성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다시금 강조하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해석적 접근이 어떻게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반영하기 위해 직원들을 초청했다"고 말했다.

IVF는 모든 직원들과 함께 18개월 동안 9개 부분의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다양한 책들을 읽고 관련 성경구절을 연구한 후, 이들이 IVF의 불변하는 입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인간의 성에 대한 IVF의 입장은 지난 75년 역사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

자오 부대표는 "우리는 항상 직원들이 우리 사역의 신학적 신념을 반영해 주기를 기대해왔으며, 이를 통해 어떤 교회, 회당, 모스크, 종교 단체들에게도 참이 되길 바랐다.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념이 바뀐 직원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또한 우리가 신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갈 생각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IVF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에는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의 가르침을 수용할 뿐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가진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을 강조하되, 또한 성소수자들을 섬길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개발하는데 눈에 띄는 투자를 해 왔다. IVF 내부 뿐 아니라 어디에서든 이같은 신학에 동의하는 성소수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성경은 '정확무오' 하다

리고니어선교회 설문조사…美 10명 중 절반만 동의

[1면으로부터 계속]

◈선과 악에 대한 신념

응답자의 65%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짓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선하다는데 동의했다.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미국인들의 경우 54%가 이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69%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9%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응답자의 69%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영원한 멸망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미국인들 가운데에서도 47%만이 이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52%는 우리의 선행이 천국에서 우리의 자리를 보장받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한다는데 동의했다.

◈구원과 성경에 대한 신념

응답자의 52%는 성경만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동의했다.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미국인들은 95%가 이에 동의했다. 성경은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100% 정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동의했으며 43%는 동의하지 않았다.

성경이 다른 모든 경전과 같이 도움이 될 만큼의 고대 신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44%가 동의하고, 45%는 동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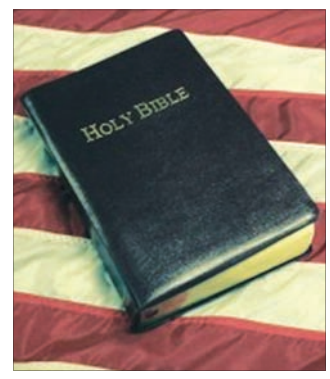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우는 51%,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경우 44%, 백인의 경우 47%가 동의했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는 31%가 동의했다.

응답자의 76%는 개인 구원을 위한 각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 86%가 이에 동의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념

60%의 응답자는 천국은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는 장소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보내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라는데 대해서는 40%가 동의하고, 44%는 동의하지 않았다.



ⓒ더가스펠코얼리션

응답자의 59%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교회에 대한 신념

응답자의 절반 이상(59%)은 단독 혹은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 참석을 대체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45%는 성경으로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 기독교 교회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29%는 "내가 다니는 지역 교회는 나의 성찬식 참석을 보류하거나 교회 내 교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데 동의했다. 54%는 교회가 정치적 사안에 침묵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 응답자의 65%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권위에 대한 신념

응답자의 50%는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낙태는 죄악이라는데 동의한 응답자는 49%, 전통적인 결혼 이외 성관계는 죄악이라는데 동의한 응답자도 49%였다. 42%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비난이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했고, 50%는 성 정체성은 선택의 문제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강혜진 기자



ⓒPixabay

홍해의 기적처럼 무슬림 개종자들 구원

바이블포디미스트…최근 보고서에서 간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비슷한 기적이 일어났다.

6일(현지시각) 英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기독교 단체인 '바이블포미디스트'(Bible for Mideast)는 최근 보고서에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중동 지역의 무슬림 개종자들을 보호하신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리즈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개종자는 "약 50명의 무슬림 개종자들이 세례를 막 끝내고 버스에 올라타려고 하자, 무장한 무슬림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총을 쏘기 시작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리즈완은 "세례를 받기로 한 이들을 포함해 약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버스로 이동했다. 세례식과 기도를 마친 후 가정교회에서 예배와 성찬식을 가지기 위해 모두 버스에 모였다. 버스가 이동하는데 갑자기 3대 이상의 차량이 우리 뒤에 나타나서 우리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매우 겁에 질린 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이 일어났다. 버스가 무장한 이들로부터 떨어지기 위해 속력을 낼 때, 개종자들과 인도자들은 갑자기 모래 바람이 일어나 주변에 휘몰아치는 광경을 보고 놀랐다.

그는 "우리 버스 뒤로 순식간에 큰 모래 폭풍이 만들어졌다. 처음 모래 폭풍을 볼 때는 겁이 났다. 우리가 잡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래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느꼈다. 강하고 놀라운 분이 큰 미소와 함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은 모래 폭풍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쫓던 이들의 길을 막으셨다"고 간증했다.

결국 이들을 뒤쫓던 무슬림들은 모래 폭풍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었고, 개종자들은 모두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새신자들은 "세례식이 매우 비밀리에 진행됐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어떻게 이를 알게 됐는지 모른다"면서도 "어떠하든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러시아 하원.

러시아 반테러법 위반혐의 목사, 항소 기각

종교자유 위한 싸움은 계속…소련 이후 가장 제한적인 법

러시아의 논쟁적인 반테러리즘법, 이른바 '야로바야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미국의 목회자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4일(현지시간) 독립적인 침례교 선교사인 도널드 오세와르드 목사(55)가 오룔 법정에 낸 항소가 기각됐다고 전했다.

미국 출신 목회자로서 10년 반 이상 오룔에 거주해 온 그는 신고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초청장을 공공장소에 붙인 혐의를 받았다.

법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많은 이 법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그레이트커미션 미디어미니스트리의 하누 하우카 회장도 있다.

하우카 회장은 "현 상황은 1929년 소련 당시와 너무 흡사하다. 당시 신앙의 고백은 오직 교회에서만 가능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동일한 상황으로 돌아갔다. 이같은 반테러리즘 법은 소련 이후 역사상 가장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ICC의 러시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앤드류 케르는 "이같은 회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세와르드가 법원을 통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행복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독교인들 및 소수 종교인들과 같이 그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법으로 인한 잘못된 고소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미국 대사관 관계자가 오세와르드를 만났다는 소식에 큰 격려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이같은 끔찍한 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데 있어서 외교적인 압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의 이 '새로운 전도 금지법'에 의해 첫 번째 희생자를 낸 이 법은 얼마 전 푸틴정부에 의해 통과된 바 있다.

그 당시 운동가들은 "이 법은 테러에 대한 엄중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종교적인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가혹한 조치"라며 격렬히 반대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법안에 서명했고 시비리예프는 7월 28일 재판을 받았다.

이 때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360km 떨어진 오룔 주에서 사역하던 미국인 침례교 목사인 도날드 오세왈드도 4만 루블(약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었다.

그 당시 자신의 웹사이트에 소송에 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서류로 입증한 바 있는 오세왈드는 결국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들은 그와 함께 한 그룹이 기도와 성경읽는 모임을 가졌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집에 들이닥쳤었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숙박

추가요금이 없습니다

- 같은 값, 다른 여행
- 화요일 라스베가스 숙박시 벨라지오 호텔숙박
- 한인 여행사 최초! 특급 벨라지오 숙박
- 여행의 품격, 호텔이 결정합니다.

3일 그랜드캐년 / 라스베가스 ▶매주화 출발 $299
4일 실속 4대 캐년 ▶매주화 출발 $389
6일 실속 미서부 일주 ▶매주화/토 출발 $599
7일 4대 캐년 + 요세미티 / 샌프시스코 ▶매주화/토 출발 $689



단풍절정 한국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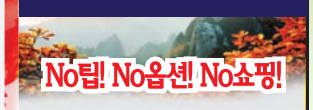
Imagine your Korea & world

$2,200 (항공포함) 10일
No팁! No옵션! No쇼핑! ▶10/20



▶부소산성 – 전주 한옥마을 – 두륜산 케이블카 탑승체험 – 강천산 군립공원 관광 – 화개장터 관광 순천 갈대밭 – 금산 보리암 – 남해 독일마을 –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 – 외도 해금강 유람선 부산의 자갈치 시장 – 경주 불국사 – 대릉원 (천마총) 관광 및 첨성대 경유 영덕 해맞이 공원 – 삼척 환선굴 –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 강촌 레일바이크 체험 (4인승 탑승)

한국특선



No팁! No옵션! No쇼핑!

- 향공포함 / 전주, 해남, 외도, 경주, 영덕, 설악 등

전국일주 7일 ▶토 $2,199
서남부권 4일 ▶토 $1,699
한려수도일주 3일 ▶월/금 $1,699
남해안 일주 ▶월/금 $1,499
평창올림픽/강원 3일 ▶수 $1,549

녹십자 퍼펙트 건강검진

건강검진A+리무진A+강남소재 호텔숙박



녹십자HS 멀티비타민 무.료.증.정

퍼펙트 플러스 검진 $530 건강검진만 $370
신체측정, 안구, 구강, 심전도, B형간염, 흉부X-ray, 소변검사, 혈액정밀검사, 갑상선기능, 상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퍼펙트 골드 검진 $600 건강검진만 $440
플러스 퍼펙트 건강검진A+수면대장내시경

오픈기념 이벤트!



★응모기간: 10월14일 까지 추첨일: 1차8월 15일, 2차9월 15일, 3차 10월 15일
(한국왕복항공권 8월 15일 1장, 9월 15일 1장 추첨했고 그 외 모든상품은 10월 15일에 추첨합니다)

★응모처 : 푸른투어 사무실 내방 사무실 내방 고객님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1차 당첨자 : 최은순 님



2차 당첨자 : 지현희 님

경품이벤트 그랜드 추첨을 10월15일 오전11시 푸른투어 LA지사 (올림픽+세라노)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참관바랍니다

Special 1 Jashua Tree

조슈아트리 캠핑 1박2일



가이드+캠핑전문 쉐프와 함께

$279 ▶출발 :10/29

❶ 내인생의 첫번째 사막여행
❷ 별사진, 별보기, 삼겹살 바비큐, 캠프파이어
❸ 책에서 만나던 사막노을, 사막여우, 사막토끼를 만나보세요.

Special 2 Alaska

알래스카 오로라 기차여행 4박5일

$1,300 +항공 $1,200 [얼리버드 할인] +항공

10월 31일까지 예약시 얼리버드 $100할인 ▶출발 : 목요일 (12월 1일부터)

▶ 페어뱅스, 치나, 노스폴, 앵커리지, 커드우드

❶ 전세계 유일 '설국열차'타고 알래스카 횡단(약12시간)
❷ 호텔에서 편안하게 오로라 관찰
❸ 지구 최북단 설국에서 즐기는 노천온천
❹ 페어뱅스 역사박물관, 얼음호텔, 산타마을 등

Special 3 Grand Circle

그랜드서클 9대 캐년/ 세도나 6박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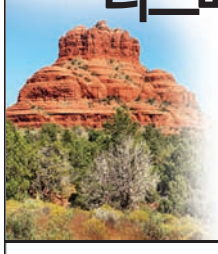
[특별출발] ▶11/24 $849

▶로스앤젤레스 – 라스베가스 – 윌리엄스 – 세도나 – 그랜드 캐년 – 페이지 – 파웰 호수 – 글랜 캐년댐 – 페이지 – 앤텔로프 캐년 – 모뉴멘트 밸리 – 모압 – 아치스 캐년 – 캐년랜즈 – 캐피탈리프 – 브라이스 캐년 – 라스베가스 – 캘리코 – 로스앤젤레스

미서부

세도나 투어, 알렉스 강 고문 동행

라스베가스/세도나 2박3일



▶월요일 출발 $249

▶바스토우, 라스베가스, 킹맨/셀리그만 윌리엄스, 플래그스태프, 세도나, 몬테주마 웰 피닉스, 팜스프링스, 로스앤젤레스

서부 여행의 새로운 표준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월 그랜드 캐년/브라이스 캐년/자이언 캐년		
4대 캐년 (벨라지오 숙박)	4일	$389
4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 4일 – 매주 화 / 7일 매주, 화 토 3대 캐년 + 앤텔롭 캐년		
그랜드 캐년/라스 베가스 (벨라지오 숙박)	3일	$299
▶ 매주 화, 토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4일	$389
▶ 매주 월, 목, 금, 토		
미서부 실속 여행 (벨라지오 숙박)	6일	$599
▶ 매주 화 토		



LA 일일투어

▶매일 출발 $59

(50인승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중식불포함)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 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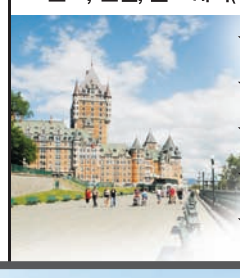
Wow~ 천섬크루즈 포함

리얼 캐나다를 보다!

[프리미엄] 캐나다 동부 5일

▶매주 금 ~~$1,399~~ 1,099
신상품 런칭기념

토론토, 천섬, 올드퀘벡(어퍼/로워타운), 몬트리올, 오타와, 나이아가라



★ 천섬 크루즈 투어
★ 샤토프롱트낙 호텔
★ 오타와 총독관저 리도홀, 연방의사당 방문
★ 와이너리 투어, 캐나다 아이스와인 시음
★ 북미 최고의 노트르담 성당

미동부

$100 상당의 3대 옵션 포함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안개속의 숙녀호 탑승

명문대 탐방 5박 6일 ▶화,토 $1,090
브라운 / 예일 / 하바드 / MIT / 프린스턴 / 유펜 / 존스홉킨스 / 콜롬비아

명문대 탐방 7박 8일 ▶수 $1,160
브라운 / 예일 / 하바드 / MIT / 프린스턴 / 유펜 / 콜롬비아 (나이아가라)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4명 이상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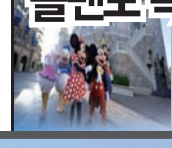


"푸른투어는 동부여행도 직접 운영합니다"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 6일 (미동부 5일 + 토론토/천섬)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 8일 (미동부/천섬 6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천섬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올랜도 특별상품

디즈니, 유니버셜 등 에버글레이드 에어보트 ▶매주 화



올랜도 3일 $799 4일 $899 5일 $1,399
마이애미 3일 $849 4일 $949
올랜도/마이애미 4일 $1,399 5일 $1,499

바다위의 리조트, 크루즈

특급 프린세스

미주 최대의 직영점을보유한 푸른투어만의 남미완전일주

페루/이과수/리오와 남미완전일주크루즈 23일 $4,999
▶2017년 1월 14일

[남미 〈아말리아빙하〉크루즈와 이과수/리오데쟈네이로 20일 $4,299
▶2017년 1월 17일

특급 프린세스와 함께하는 남미일주 크루즈 17일 $2,999
▶2017년 1월 17일

동유럽핵심과 지중해크루즈 10일 $2,999

▶ 프라하 2박 / 로마 1박 / 초호화 크루즈 4박 / 바로셀로나 1박 (미서부 출발기준) ▶10/22



천년의고도 체코 프라하, 세계문화유적의중심 로마 레오나르도다빈치의 피렌체, 세계적인 영화제의 깐느, 그레이스켈리의 모나코, 아름다운 프렌치리비에라 남프랑스 프로방스의낭만 마르세유, 가우디의 바로셀로나
초호화 NORWEGIAN CRUISE EPIC호

크루즈 런칭 기념 PRINCESS CRUISE 특선

* BAJA MEXICO 5일 ▶11/27 $345
▶ 11/27 LOS ANGELES / SANTA BABARA / ENSENADA (CROWN PRINCESS)
* MEXICO RIVIERA CRUISE 8일 ▶11/12, 12/10 $699
▶ LOS ANGELES / PUERTO VALLARTA / MAZATLAN / CABO SAN LUCAS (RUBY PRINCESS)

멕시코 / 캐러비안 크루즈

바하멕시코 4일 ▶매주 목, 금 $299부터
바하멕시코 5일 ▶매주 일, 월 $299부터
바하마 캐러비안 크루즈 5일/8일 ▶수시출발 $799
전세계 크루즈 ▶수시출발
▶ 파나마운하 / 남미(남극)크루즈 / 쿠바크루즈 / 하와이 남태평양 / 갈라파고스 / 알래스카 / 지중해 /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피요르드 / 그리스. 흑해

*크루즈 상품은 출발일마다 계약시점에 따라 요금 변동 있습니다.

유럽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중세 유럽으로의 시간여행'
크로아티아 완전일주 + 발칸핵심 슬로베니아 / 보스니아 10일

▶ 플리트비체 , 두브로부니크, 스플릿, 라스토케, 블레드호수, 포스토니아동굴, 피란, 모스타르, 메주고리예

* 푸른투어만의 안전하고 알찬 발칸핵심투어!!

▶특별출발 : 11월 5일 / 11월 25일 $2,999

푸른투어 인증 안전 ★★★★★ 편의 ★★★★★ 식사 ★★★★★ 테마 ★★★★★

❶ 중세유럽 건축물과 쪽빛 아드리아해의 찬란한 조화, '크로아티아'
❷ 같은 유럽 다른느낌, '보스니아
❸ 동유럽의 숨은 보석, ' 슬로베니아'
❹ 천상의 호수와 폭포, 플리트비체 호수

정통 서유럽 12일
▶수시출발 $3,399
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이태리

정통 동유럽 10일
▶수시출발 $2,999
뮌헨/프라하/크라카우/부다페스트/부쿠레슈티

동서유럽 20일
▶수시출발 $5,199
런던/파리/인터라켄/밀라노/베니스/로마/프라하/부다페스트 등

미니 서유럽 8일
▶수시출발 $2,899
런던/파리/인터라켄/밀라노/베니스/로마/프라하/부다페스트 등

꽃보다 발칸 5개국 8일
▶수시출발 $3,099
4성급 호텔이상, 전용버스, 입장료포함 전 일정 특식제공
– 해물파스타/송아구이/호이리게

스페인/포르투갈 11일
▶수시출발 $3,199
리스본/세비야/코르도바/똘레도/바르셀로나

그리스/터키 11일
▶수시출발 $3,099
이스탄불/카파도키아/콘아/안탈야/파묵칼레/에페소/데살로니까/고린도/아테네

이태리 일주 7일
▶수시출발 $2,799
밀라노/베니스/피사/프란체/로마/폼페이

뿌라비다 코스타리카

활화산 용암 온천물로 즐기는 알칼리 온천욕
뽀아스화산/라빠스나비/폭포공원 관광 포함

4일 $850 +항공 5일 $925 +항공 6일 $1,090 +항공

하와이

호텔 인&아웃 픽업 서비스 포함
호놀룰루 시내관광, 오아후 섬 일주 관광

퀸카피올라 호텔 4일 $799
애쉬톤 와이키키 4일 $929
하와이 허니문 3일 $1,349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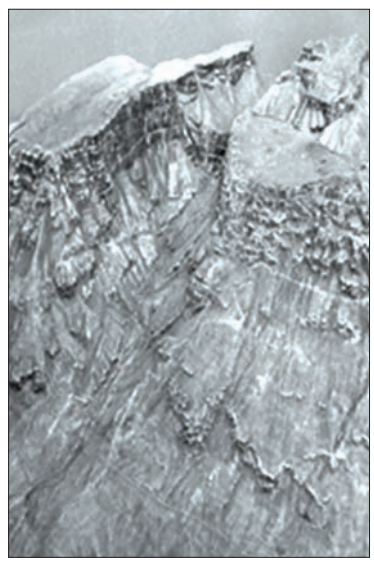
하얏트지바 로스카보스 숙박
신혼여행 / 골프패키지 All Inclusive 서비스

로스카보스 4일 $659 +항공 5일 $800 +항공 6일 $1000 +항공
칸쿤 4일 $800 +항공 5일 $950 +항공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9)

마사다…자유를 향한 최후의 항전지(中)


로마인들에게는 마사다가 매우 상징적이며 중요한 곳
마사다 요새는 450미터의 고지대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

◈ 마사다(Masada)의 역사

66년,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유대교의 파벌 중 하나인 열심당원이 이곳에 주둔하던 소수의 로마 수비대를 쫓아내고 인근을 거점으로 삼았다.

긴 전쟁 끝에 70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함락되자 도망쳐 온 열심당원의 지도자인 엘리에젤 벤 야일(Eleazar ben Yair)이 소수의 유대인과 열심당원을 포함한 960명을 데리고 마사다를 최후의 거점으로 삼아 로마에 대항해 게릴라를 시작. 로마군은 유대전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정예군단인 제10군단 9천 명과 유대노예와 노역인 6천 명인 총 1만 5천 명을 동원, 루시우스 플라비우스 실바(Lucius Flavius Silva) 장군에게 요새 함락을 명했다.

66년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이 발발하자 일단의 유대인 저항군이 주둔하고 있던 로마수비대를 몰아내고 이 요새를 차지했으며 당시의 지도자는 에리아자르 벤 야이르였다고 한다.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다른 유대인들과 그 가족이 마사다로 피난해서 합류했으며 2년 동안 이곳을 근거지로 삼고 로마군과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다른 유대인을 공격했다.

72년 플라비우스 실바장군이 이끄는 로마 제10군단이 마사다로 진격했다. 여러차례 요새를 공격했으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고 이에 로마군은 서쪽의 고원과 같은 높이의 거대한 성채를 쌓아올려 공성을 준비했다. 요세푸스는 그가 기록한 다른 전투와는 달리 이 전투에서 유대 저항군의 반격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마사다의 저항군이 로마군에 대항할 전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역사학자들은 로마군이 성채를 쌓을 때 같은 열심당인 유대인 노예를 이용했기 때문에 민족주의 성향이 다분한 열심당원이 차마 동족을 죽일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

73년 드디어 공성을 위한 성채가 마련되자 로마군은 공성기를 이용해 성벽 일부를 깨뜨리고 요새로 진격해 들어갔다. 그러나 식량창고를 제외한 요새안의 모든 건물이 방화로 불에 탔고 엄청난 수의 자살한 시체들만 즐비했다. 유대인 율법은 유대인의 자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제비를 뽑아 서로를 죽였으며 최후에 2인이 남자 한 명이 죽이고 남은 한 명은 자살했다고 한다. 다른 건물을 모두 불에 태우면서도 식량창고만은 남긴 것은 최후까지 자신들이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자살한 것이지 식량이 없거나 죽을 수밖에 없어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마사다에서 살아남은 것은 여자 두 명과 다섯 명의 아이들뿐이며 로마군은 그 무서운 자살 광경에 겁을 먹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

◈ 마사다와 대항쟁

대항쟁 시대의 마사다의 역사는 그 치열한 전쟁에서 살아남았던 두 명의 여인과 5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마사다는 대항쟁이 시작되던 66년에 열심당 중에서도 매우 과격한 분파였던 시카리(Sicarii)에 의해 점령됐다. 시카리라는 말은 라틴어 Sicarius의 복수형인데, 그 의미가 "단검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옷 주머니에 늘 단검을 지니고 다니면서 언제라도 싸울 준비, 급습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어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이 시카리의 지도자는 엘르아잘 벤 야이르(Eleazar ben Yair)였다. 이 시카리들은 같은 유대인 중 항쟁 그룹 안에서도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 당했던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카리들은 유대인 그룹들 안에서 서로 의견들이 갈라지면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시카리들과 그 가족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이미 그 곳에 66년부터 주둔해 있던 시카리들과 합류했다.

티투스에 이어 로마군을 이끈 실바(Silva)가 유대인 반란군의 마지막 무리들이 모여있는 마사다로 72년에 진군해 갔다. 15,000명의 로마군들이 고작 960명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만큼 마사다가 로마인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고, 그 만큼의 병력이 있어야 점령할 수 있는 곳이었다. 로마군들은 먼저 마사다에 있는 시카리들을 고사(枯死)시키기 위해 마사다를 둘러싸는 포위 성벽을 쌓았다. 수천 톤의 돌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작전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로마군들은 직접 마사다 안으로 진입하기 위한 군사적인 용도의 비탈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비탈길의 위치는 비록 깎아 지르는 절벽이기는 하지만, 가장 적은 공사기간이 소요될 서쪽 절벽을 선택했다.

유대인들 중 실질적인 전투인원은 극소수였지만 마사다 요새는 450미터의 고지대에 지어져 있는 천혜의 요새였다. 사방이 절벽인데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뱀처럼 꼬인 좁은 길 뿐. 5미터가 넘는 높은 성벽과 20미터가 넘는 37개의 망루까지 있어 단순한 공격만으론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지이다.

요새를 포위한 후, 수십 배에 이르는 병력으로 2년 동안 공격했지만 마사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사다 요새는 너무나도 높은 곳에 위치해 로마군이 자랑하는 공성전으로는 점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새가 위치한 유대 광야는 전투를 계속하기에 좋은 기후가 아니었다.

최후의 수단으로 실바 장군은 마사다에서 가장 낮은 성벽이 위치한 서쪽에 툭 튀어나온 바위산을 중심으로 15,000명을 동원해 마사다와 비슷한 높이의 토산(土山)을 쌓기로 했다. 토산을 쌓아 공성병기가 공격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 토산에서부터 흙과 나무를 차근차근 쌓아 마사다까지 이어지는 비탈길을 만든 뒤 공격해 올라가는 무식한 방식이었다.

천 명도 안 되는 유대인들로서는 그 많은 병력이 토산을 쌓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6개월 후 토산과 비탈길이 완성되어 성벽이 무너지자 유대인들은 최후의 수단을 택한다.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 자살을 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서로를 죽여주기로 했다.

생존자 중 성인 남성들이 자기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모인 뒤, 10명의 지도자를 뽑아 나머지를 모두 죽이게 했고, 남은 10명은 제비뽑기를 하며 한 명씩 죽인 뒤, 마지막 한 명은 로마군에서 식량과 무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마사다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여 모두 시체가 되었다.

로마군은 마사다에서 피어오르는 불길을 보고 허겁지겁 요새로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본 건, 사망한 유대인의 시신뿐이었다.

그럼에도 생존자가 있었는데 하수도길(혹은 우물, 동굴 등)에 숨어 있던 5명의 어린이와 2명의 노파였다. 로마군은 목숨을 구걸하지도, 노예가 되는 치욕도 불사한 유대인들의 용기에 보답해 이들을 살려 주었다.

전쟁사에서 이런 고지대에 위치한 성과 요새들은 포위당한 후 물, 식량부족으로 인해 끝나기 마련이고 로마군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헤롯 대왕은 마사다를 비롯한 주변 광야가 대부분 석회로 이루어져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고인다는 사실을 알고 빗물이 흘러 내려가는 지점을 막아 물 저장고로 만들었다. 우기마다 수만 리터의 물이 쌓이는 마사다였고 곳곳에 만들어 둔 물 저장고는 총 750만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기에 목욕탕과 사우나를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마사다는 물이 풍족했다.

식량 또한 수년을 먹을 수 있도록 포도주, 기름, 곡물, 과일 등이 보관되어 있는데 마사다의 특이한 기후와 창고의 설계가 맞물려 저장 기간도 백년이 문제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평평한 광야인 마사다 정상을 이용해 중앙엔 밭도 일구고 있었다고 하니 식량 문제는 없었다.

비둘기 집을 만들어 두어 각종 조류를 식량 겸 배설물을 이용해 연료로 썼다고 하니 로마군이 수년을 포위하고 있더라도 먹고 살기에 문제가 전혀 없는 장소였다.

기후도 로마군이 버티기엔 무척이나 힘든 장소였다. 유대 광야는 여름에는 50도가 넘는 기후에 비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황무지라 물은 물론 식량 공급도 원할 하지 못한 장소였다. 〈계속〉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나들이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2월 14일~25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BPPE 인가, ABHE 정회원 인준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박무용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텐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1.전도용품 세일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 전도물티슈 ✦
✦ 볼펜 ✦
전도용물티슈 1,000set($380) 고급항균 물티슈!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샘플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환영배너 (스텐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버시티보험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보험가입&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천연항생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적용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2nd St. Oxford Ave. 3nd St.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새 관점 학파 칭의론, 로마가톨릭과 뭐가 다른가?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제35차 학술대회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회장 김용국) 제35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1일 서울 사당동 총신대학교 제1종합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덕성 박사(브니엘신학교 총장)가 '트렌트 공의회 칭의론과 칼빈의 해독문(解毒文)'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최 박사는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를 거부하는 가톨릭의 트렌트공의회(Concilium Tridentinum) 칭의론을 비판하는 칼빈의 해독문(Acta synodi tridentinae cum antidoto, 1547)을 통해, 최근 (바울신학의) 새 관점 학파와 김세윤 박사 등의 칭의론이 트렌트공의회 칭의론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최덕성 박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교회에서는, 새 관점 학파 칭의론이 불러 일으킨 논쟁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고 있다"며 "새 관점 학파의 칭의론 요점들은 반(反)종교개혁 사상을 담은 트렌트공의회 칭의교령(Decretum de justificatione, 1547)의 핵심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 핵심은 칭의의 상실 가능성, 구원의 탈락 가능성, 칭의의 종말론적 유보, 행함 있는 믿음으로의 구원, 칭의와 성화의 동일시, 칭의와 구원의 윤리적 완성 등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분적으로 인간 자신의 행위에 달렸다'는 행위구원론이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를 내세우자, 당시 가톨릭은 공의회를 소집해 '칭의(稱義·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轉嫁)됨)와 성화를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시작된 의가 수평적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의화(義化·의가 인간 안에 주입되고 내재하는 능력으로 점진적 과정을 거쳐 진행됨)'된다는 일종의 행위구원론을 내세우며 반박했다.

최 박사는 "그러나 고대 교회는 인간의 공로가 구원과 칭의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거부했다"며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칭의의 일부는 하나님께, 다른 일부는 사람에게 그 공로가 있다고 하는 중도적 교리가 고안됐고, 펠라기우스주의와 어거스틴주의의 결합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협력이 구원 또는 칭의를 완성시킨다는 신학 공식으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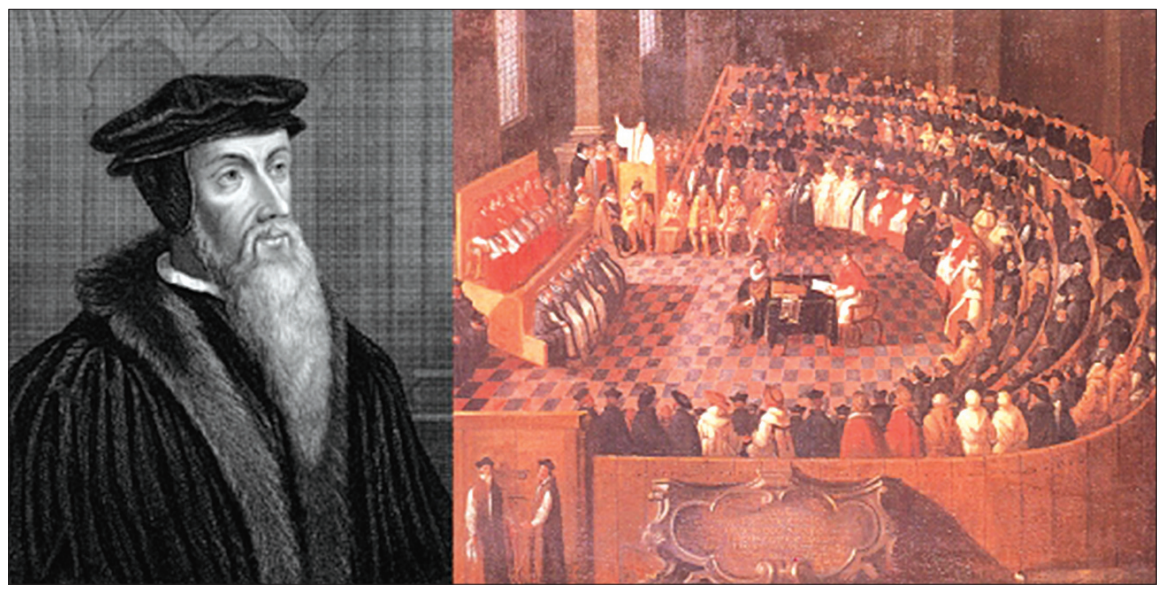
그는 "종교개혁 당시 '칭의론'은 그 위에 교회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조항으로 이해됐고,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와 로마가톨릭을 첨예하게 가르는 대척점이었으며, 양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하고 선명한 조항이었다"면서 "존 칼빈은 칭의교리를 기독교의 '핵심 요체(the main hinge)'라면서 '트렌트공의회 칭의교령에 대한 해독문'을 저술하여 이신칭의 중심의 프로테스탄트 칭의론이 성경적이고 합리적임을 설파했다"고 설명했다.

트렌트공의회와 칼빈의 해독문을 상세히 비교한 후, 최덕성 박사는 "칼빈은 트렌트공의회 칭의교령에 참을 수 없는 세 가지 오류가 있다고 했다"며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케 되기 전까지 부정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칼빈은 해독문에서 "인간 행위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부터 그 가치를 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부성애적 사면으로 우리의 사악한 모든 행위를 용서한다는 진리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했다.

둘째는 "구원과 칭의에 대한 인간 공로의 무가치함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칼빈(왼쪽)과 트렌트공의회 모습.

칼빈은 "인간 안에 있는 아무리 선한 것이나 고상한 윤리실천, 성숙도 하나님의 구원의 눈높이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며 "인간의 공로가 영원한 죽음 신분에 대한 죄책을 만회할 수 없음을 말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진리를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셋째로는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믿음의 토대를 허물어 뜨리고, 유일한 중보자에 대한 신앙 자체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최덕성 박사는 "칼빈의 해독문은 트렌트공의회 칭의론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성령 역사의 위대성 이해를 방해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며 "인간의 완전 타락과 이신칭의의 중요성,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루터에 견주어 성화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며,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면서도 둘은 결합돼 있고 칭의가 주어지면 성화와 쇄신이 뒤따른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최 박사는 "어거스틴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의 중도 노선을 취하는 트렌트공의회 칭의론은 새 관점 학파와 관련된 현대 칭의론자들의 주장과 여러 면에서 일치하거나 궤를 같이한다"며 "구원의 절반은 하나님의 은혜에, 절반은 신앙(信望愛)를 포함한 인간의 윤리적 실천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풀러신학교 김세윤 교수도 저서 〈칭의와 성화〉를 통해 '칭의가 종말론적으로 유보됐다'면서, 칭의와 성화를 한 묶음으로 여기고 구원의 탈락 가능성과 윤리적 실천을 통한 칭의의 완성을 주창한다"며 "김세윤이 물세례와 칭의를 결속시키는 것은 인상적으로, 현대 로마가톨릭교회 교리로 공식 수납되고 있는 트렌트공의회 칭의론을 고스란히 옮긴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새 관점 학파와 김세윤 교수 등이 '전통적 칭의론에서는 윤리가 설 땅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교회에 윤리가 결여된 까닭은 오히려 칭의교리와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가르치지 않은 탓이 아닐까"라며 "성경을 윤리실천의 결여라는 콘텍스트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자 순서가 바뀐 것으로, 어린아이를 목욕시킨 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교각살우'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논평한 라은성 박사(총신대)는 "최 박사의 발표는 갖가지 칭의론에 대한 혼동된 견해들을 일축시키는 글로, 칼빈의 글로 로마가톨릭주의를 비판하면서 개혁신학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며 "근간에 일부 그릇된 신학자들이 생명을 바치면서 재발견하고 고수한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기던 차에, 올해의 기나긴 무더위를 폭풍으로 날려버린 듯한 기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외에 학술대회에서는 박용규 교수(총신대)가 '대중전도와 민족복음화운동', 곽인섭 교수(백석대)가 '마음의 개척자, 윌리엄 퍼킨스', 전준봉 박사(목장교회)가 '해방 직후 한국교회의 정치화 문제', 이상규 교수(고신대)가 '교회사에서 본 장로제도'를 각각 발표했다.

이대웅 기자



최덕성 박사(가운데)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논평한 라은성 박사.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
유재명 | 두란노 | 228쪽



현대 성서주석으로 유명한 Interpretation 시리즈에, 주석 시리즈 말고(!) 주제별로 나오는 시리즈가 있다. 그 타이틀은 바로 Interpretation: Resources for the Use of Scripture in the Church이다. 순수하게 '성서는 돈과 소유에 대해 뭐라 말하는지' 궁금하고, 그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이 듣고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일독하길 권한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영성일기
유기성 | 규장 | 2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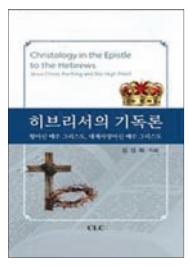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은 잘 모른다. 그것이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결정적 이유이다. 〈영성일기〉의 실제적인 초점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있다. 보이거나 귀에 들리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영성일기를 쓰며 기록해두면 받은 은혜가 더 분명해진다.

올바른 생각의 힘
케리 커크우드 | 순전한나드 | 232쪽



우리의 생각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어야 한다. 축복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 것이다. 축복의 생각은 예언적이다. 축복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그 가치와 잠재력을 본다. 이 책은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투와 우리가 생각을 통해 창조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올바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기독론
김성옥 | CLC | 568쪽



이 책은 히브리서 본문연구를 통해, 히브리서에 나타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서의 기독론을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다. 또한 히브리서의 기독론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히브리서의 종말론, 구원론, 새 언약의 성취, 우주론, 권면의 신학 등도 함께 다룬다. 따라서 이 책은 히브리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돕는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일년 일독 성경프로그램으로 유익한 훈련 교재"

자유롭게 응용하고 배열한다면, 매우 체계적인 성경 교육이 진행될 것

CLC에서 교회 성경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도서를 출판했다. 〈구약성경의 정수〉와 〈신약성경의 정수〉이다.

〈구약성경의 정수〉는 17장으로, 〈신약성경의 정수〉는 12장으로 구성했다. 총 29장으로 주일오후 등에서 변용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도서이다.

필자는 목사로서 52주로 작성된 교육프로그램은 주중 외부 초청강사가 오는 우리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총 29장 구조는 목사가 '일년일독 성경교육 프로그램'에 매우 적합한 구조이다. 목사가 자유롭게 응용하고 배열한다면, 매우 체계적인 성경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약성경의 정수〉는 트램퍼 롱맨 3세가 저술했다. 트램퍼 롱맨 3세는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구약학자이다. 저자의 깔끔한 문체가 독자들에게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번역자가 경어체로 번역해서 강의용(교육)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 같다. 그래서 독자는 학문적인 도서가 아니라 포근한 강의실에 부드러운 강의를 듣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에서도 핵심 부분을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어, 핵심을 깊게 이해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선택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을 느낄 때 독자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구약성경의 정수
트램퍼 롱맨 3세
CLC | 336쪽

〈구약성경의 정수〉는 창조, 타락, 구속(아브라함, 율법, 다윗, 유배 그리고 귀환)의 전형을 잘 정리했다. 구약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용이다.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볼 때 세부적인 항목이 누락되는 단점은 있다. 그러나 저술 목적을 충실하게 지켜 독자가 구약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를 세워주었다.

전체 배열이 구약성경 목록이나 연대기대로 구성하지 않고, 저가가 구도하는 구속사에 적합하도록 배열했다. 그래서 시편과 지혜 문헌이 통일왕국(12장)과 분열왕국(15장) 사이에 배치됐다. 그리고 선지자(선지서), 유배와 귀환(17장)으로 구성했다. 그래서 마지막이 에스더로 마감하는 것은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

신학 독서나 훈련을 할 때 훈련생(독자)은 그 연습장에서 항상 자기 정보를 갖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자기 정보를 갈고 닦을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으며, 저자의 견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백지 상태로 독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도서는 명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책은 저자가 자기 생각을 명료하게 제시해주는 것이다. 트램퍼 롱맨 3세는 그 부분에서 매우 좋다. 독자가 그 저자의 견해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좋은 결정을 한다면 매우 유익한 독서가 될 것이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BPPE 인가, ABHE 정회원 인준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박무용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인문 고전 읽기]

역사,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인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는 가장 널리 알려진 역사(학) 입문서 중 하나이다.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는 말이 인용되는 바로 그 책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인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역사가는 각 세대가 역사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개인의 기억 상실이 의사의 치료를 요구하는 정신적 결함인 것처럼, 역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없는 공동체는 심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교회사가인 필립 샤프에 따르면 "무릇 역사란 친구와 대적이 만들어낸 원 사료를 가지고 진리와 사랑의 정신으로, 분노도 과욕도 없이, 아무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고 모든 이에게 선의를 품고, 분명하고 신선하고 살아있는 문체로" 기록해야 한다.

또한 "교훈하고 바로잡고 격려하는 생명의 책으로, 최고의 기독교 해설서요 변증서로서 써야 마땅하다"고 했다.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E. H. 카(Edward Hallett Carr, 1892~1982)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6년부터 20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했었다. 그리고 1936년 웨일즈대 국제정치학 교수가 되었다. 〈소련사〉는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란 무엇인가
E.H. 카
까치 | 264쪽

카에 의하면 과거가 미래에 빛을 던지고, 미래가 과거에 빛을 던진다. 역사란 과거의 여러 사건과 차차 나타나는 미래의 여러 목적 사이의 대화라고 부를 수도 있다.

과거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이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의미 있다고 선택하는 기준이나 모두 새로운 목표가 나타남에 따라 달라진다.

입헌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이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던 시대에는 역사가들이 과거를 정치적 특히 입헌적인 견지에서 해석했다. 그후 경제적·사회적 과제가 더 큰 비중을 갖게 되자 역사가들은 과거를 경제적·사회적으로 해석하게 됐다.

카에 따르면 역사의 경제적·사회적인 해석은 정치만의 해석보다 역사가 한층 발전된 단계로 볼 수 있다. 종전의 해석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새로운 해석에 포함시켜 보다 폭넓은 해석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처럼 역사서술은 진보한다.

역사가는 사실과 해석 사이, 사실과 가치 사이에 서 있다. 이는 분리될 수 없다. 정지한 세계에서는 역사라는 것이 무의미하다. 역사는 그 본질에 있어 변화이고 운동이며 진보인 것이다.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신앙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신앙과 떼놓을 수 없다.

저자에 의하면 과학이나 역사나 사회의 진보는 오직 인간이 기존 제도를 단편적으로 개량하려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성의 이름 아래 현존 제도를 향해 근본적인 도전을 할 때 이룩된다.

그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History is 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ast and present)"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를 거울삼아 과거를 통찰하고,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북스리뷰]

교회론, 이단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

복음적 교회론의 일치성을 훼손하는 것이 이단



이단을 보는 눈
배본철
영성네트워크 | 374쪽

역사신학자이자 성령운동연구가인 배본철 교수(성결대)가 책 〈이단을 보는 눈〉(영성네트워크)을 최근 출간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그 동안 교계에서 이단 문제와 관련, 주로 사용한 교리적 잣대는 구원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 등이었다. 그런데 배 교수는 "이런 교리들과 함께 실상 이단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바로 교회론"이라며 "어떤 인물이나 집단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복음적 교회론의 일치성을 훼손해 교계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때, 그들은 전체 교계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역사상 범기독교적으로 확정된 이단들이, 이단으로 배척을 받게 된 것은 모두 그들이 지닌 독선주의적 교회론에 원인이 있었다"며 "물론 그들이 가르치는 비복음적인 내용이 이단 정죄의 단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집단에 대한 교계의 조사와 검증의 발단이 된 것은 결국 그들이 기존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크게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점에서 배 교수는 "교계로부터 정죄받고 있는 이단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정통 교리에 있어서 탈선하지 않았다고 변호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배 교수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단 정죄와 배척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의심 집단을 평가하는 일부 교계의 관행 역시 문제가 된다"며 "평소 교회에서 거의 가르치지도 또 관심도 없었던 고대교회의 신조나 교단의 법 조항들을 내세워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비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배척하는 일만이 이른바 이단 전문가나 이단 평가 기구들의 주된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보다는 성도들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배 교수는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일반 성도에게 이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남들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나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책임성 있는 판단의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판단을 받는 당사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지나친 속단에 따른 정죄와 배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될 때가 많다"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이단 정죄 여부에 앞서 먼저 이단이 무엇인지, 또 어떤 범주에 속하는 것이 이단인지 등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연구는 단지 특정 집단의 이단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신을 건전한 신앙으로 지켜나가고, 또 이단이나 경계 집단에 연류된 이들을 온전한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교회론 외에 '마귀론'도 다루고 있다. 이는 "마귀가 지구상에서 아직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단 하나의 기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배 교수의 확신 때문이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교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교회를 분열시켜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단들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배 교수는 "마귀의 책략이 극단적인 혼합주의와 갱신주의, 그리고 분리주의 성격의 이단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된 개교회주의와 분파주의는 이러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단들이 활개칠 수 있는 가장 좋은 터전"이라고 했다.

또한 이 책은 이단 시비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직통계시 문제를 비롯해 방언과 예언 등 성령의 은사 문제에 대한 전통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사이의 갈등 문제를 소상히 다룬다. 그리고 열광주의적 신앙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는 네오-몬타니즘(Neo-Montanism)의 주제를 새롭게 이단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부각시킨다.

아울러 배 교수는 이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회사적 분별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김진영 기자

[북스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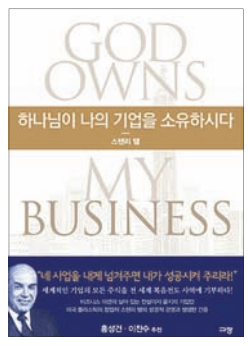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것

요즘 누군가를 "눈에 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이름과 명성에 가장 위험한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우리 사회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수식어를 들으면 곧바로 '괴짜 종교인'을 떠올린다. 물론 성직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그 와중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 진지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잘못이라면 나는 유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사죄 하고픈 마음이 들지는 않는다. 다만 영적 갈망과 충족이 너무도 이상한 것이 되어버린 게 마음 아플 따름이다"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기업인이 있다. 그가 바로 스탠리 탬(Stanley Tam)이다.

그는 회사의 주식을 전세계 복음전도 사역에 전부 기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간증하는 그리스도인 사업가이다.

세계 굴지의 플라스틱 회사를 소유한 유나이트스테이츠플라스틱의 창업주이자 탬코산업 이사장인 스텐리 탬(96)은 영혼 구원과 사업에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에 관한 세미나를 인도하고 복음전파에 힘쓰는 등 물질 뿐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 이 책을 통해 참다운 그리스도인 기업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스탠리 탬
규장 | 336쪽

이영인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반기독교 세력의 치밀한 전략과 공격
내부 분열과 정체성 상실, 본질 이탈로 표류하는 한국교회
파도만 보지 말고 바람을 보라.
시대를 바라보는 의식전환을 통하여
거룩한 사상전과 영전을 준비하라.
분열과 상처로 얼룩진 폐허의 한 복판에서
한국교회의 의식개혁과 연합을 외친
한 목회자의 필사적 절규!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라


256면 / 10,000원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꼭 한 번은 읽어야 할
이 시대의 사상전과 영전을 위한 필독서 !!!
소강석 지음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레위기의 산을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거룩의 재발견
317면 / 13,000원

생명언어
317면 / 13,000원

안나가? 가나안!
240면 / 11,000원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October 13, 2016 Vol. 72



English ministry pastors in Full Gospel North America Missions gathered at LA Full Gospel Church for the 'Connextion' Conference from October 3 to 5.

Full Gospel's English Ministry Pastors Build Connections

BY RACHAEL LEE

Pastors of English ministries (EM) in the Full Gospel North America Missions, which is affiliated with Yoido Full Gospel Church, gathered in Los Angeles from October 3 to 5 for the denomination's first conference exclusively for English-speaking pastors in North America.

The conference, which took place at LA Full Gospel Church, featured sessions with Dr. Robeck Cecil, professor of church history and ecumenics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Rev. Paul Kim, founder and lead pastor of Aboriginal Church in Toronto; Rev. Kevin Haah, founder and pastor of New City Church; and Rev. Yoon Lee, assistant director of the World Mission Department at Yoido Full Gospel Church. A panel presentation with four EM pastors was also featured during the second night of the event, during which the presenters shared their faith and ministry journeys.

The conference also included a 'mini-concert' with worship leader and musician Brian Kim, and attendees joined first generation Korean members in worship at LA Full Gospel Church's Wednesday night service.

In particular, Robeck Cecil, who is ordained with the Assemblies of God, spoke on what it means for pastors to be pentecostal in the 21st century, and Yoon Lee explained the spiritual and organizational background of Yoido Full Gospel Church, and the EM pastors' connection with the church.

"We wanted this conference to be a space where the pastors could get to know each other and see each others' faces, and form connections in that way," said Rev. Jacob Joo, the EM director of Full Gospel World Missions, explaining the choice of 'Connextion' as the theme of the conference. "We also wanted them to form deeper spiritual connections with God, and also to learn more about their own connection with Yoido Full Gospel Church."

This is the first time the denomination had hosted such a gathering, and is a sign of increasing openness from the denomination's leaders, who are first-generation Koreans, said Yoon Lee.

Thus far, EM pastors in the denomination had not had much of a platform to voice their opinions or be an active part of the denomination's activities, according to Joo. The denomination's leaders were supportive of hosting this conference in hopes that this would be a launching pad for the English-speaking pastors to become more involved in denominational matters in the future.

"I think God is in the works of something," Yoon Lee said to the group of about 30 English-speaking Korean pastors from the U.S. and Canada.

"This [conference] is now on the radar of the leaders. We're much more open than we were in the past," he added. "I think something great is on the horizon and I want us to get there together."

Organizers are hoping to make the conference an annual occurrence.

'Higher Calling' Conference Organizers Hope for 'Resurgence' in Young People

BY RACHAEL LEE

SOON Movement (also known as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or KCCC) will be hosting its annual winter conference once again this year from December 20 to 23 at the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 in San Diego, CA.

The Higher Calling Conference, which encourages young people to commit themselves to living for Christ, has drawn numerous youth and college students over the years, and some 1,300 gathered last year. This year, the conference will be held under the theme, 'Resurgence,' based on the theme verse Ezekiel 37:5-6.

"We want to see God giving and breathing new life into this generation," said SOON Movement's Los Angeles regional director Young Lee. "Many young people lost their hope and purpose, because they don't know their identity and look for intimacy in other things rather than in God."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areas of "brokenness" in young people's lives that are in need of healing, the organizers said, such as brokenness in family, in sexuality, and in their personal relationships with God.

Speakers have also been invited according to the theme, organizers said. Jessica Harris, author of 'Beggar's Daughter,' is known for speaking and writing openly about her previous addiction to pornography, for instance, and apologetics speaker and author Sean McDowell has also co-authored a book about sexuality called, 'Same-Sex Marriage: A Thoughtful Approach to God's Design for Marriage.' Both are among the main plenary session speakers, along with Maze, an author and magician; David Oh, senior pastor of Highland Cornerstone Church; and Dong Whan Kim, the national director of SOON Movement.

"Unless these various areas of brokenness are addressed, we cannot shine the light of Jesus," said Lee. "And when they are addressed, they become part of that redemptive story to share with others. But we ourselves must experience grace first."

"We hope that many people can come and experience the true grace that sets them free from the guilt and shame, and for them to be renewed in God's presence," he added. "We pray that they would experience true intimacy in God, and have a time of healing, as well as pruning."

Elective seminars will also discuss similar topics, as well as broader spiritual and mission-related topics, including depression and inner healing, purity, sexuality, the history of missions, discerning God's calling, and a surve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Meanwhile, leading up to the conference, organizers held two luncheons with local church Korean American pastors regarding the conference. SOON Movement also has been partnering with local churches to host Higher Calling Conferences for youth students in other regions. It hosted one in San Diego earlier this year in April, will also host conferences in Bakersfield (October 29) and Hawaii (January 6 to 7).

Higher Calling Conference will also take place in Santa Clara (December 27-30), Atlanta (December 21-24), and New York (January 4 to 7).

Gateway Seminary Celebrates Beginning of New Era in Southern California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Gateway Seminary, one of the six seminaries affiliated with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has officially launched its Southern California campus and held various events from October 6 to 8 to celebrate.

On the morning of October 6, the school held a dedication service with some 500 faculty members and guests at the chapel in the new campus. The mayor of Ontario, where the school is located, also attended the dedication service and gave congratulatory remarks.

Craig Evans, author and professor at Houston Baptist University, was featured later in the day on October 6 as the 'Deere Lectures' speaker. He spoke on the topic, "Ancient Biography and the Reliability of the Gospels," and compared the historical documents before and after AD 1 to explore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the gospel. Later in the evening, some 400 gathered for the Gateway Seminary Gala at the Ontario Convention Center.

Gateway also hosted a 'Gateway Festival' for members of the surrounding community. Food and various activities and games were open to the public for free.

The seminary, which was established in 1944 in Northern California, has had some 8,000 students graduate under its former name,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fter the school moved its main campus to Ontario in July 2016, it also changed its name to Gateway Seminary. The school has also had much interest in the Korean community, and has featured a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at the Southern California extension in Brea since four years ago.



Members of the surrounding community visited Gateway Seminary's new campus during the 'Gateway Festival' on October 8. (Photo courtesy of Gateway Seminary)

InterVarsity Asks Staff to Come Forward to Disclose Stances on Sexuality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has given its staff members an option to stay in the group based on their common sharing of the organization's theological beliefs on sexuality.

Staff have been asked to state their disagreement with the group's position on same-sex relationships, premarital sex, divorce, and masturbation from a biblical standpoint, and to choose to sign or not sign a form which states that their personal stand is the same as that of the organization.

If any staff member does not agree with InterVarsity's position, he or she is free to resign from the organization.

However, InterVarsity has denied the claims made in a Time Magazine story published on October 6, which said the organization would fire employees who do not share those beliefs. IVF said that that was a misrepresentation of the true policy adopted by the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said on its Facebook page:

"We're disappointed that [the] article wrongly stated that InterVarsity is firing employees for supporting gay marriage. That is not the case. In fact, InterVarsity doesn't have a policy regarding employee views on civil marriage.

"We know that LGBTQI people have experienced great pain, including much caused by Christians. We also know that we ourselves each need Jesus' grace daily. So we attempt to walk humbly in this conversation.

"We do continue to hold to an orthodox view of human sexuality and Christian marriage, as you can read in our Theology of Human Sexuality Document at the bottom of the article.

"That said, we believe Christlikeness, for our part, includes both embracing Scripture's teachings on human sexuality -- uncomfortable and difficult as they may be -- as well as upholding the dignity of all people, because we are all made in God's image.

"Some will argue this cannot be done. We believe that we must if we want to be faithful followers of Jesus.

"Within InterVarsity and elsewhere in the Church, there are LGBTQI people who agree with this theology, at great personal cost. We are learning together to follow Jesus."

All employees are not required to sign the paper, but those who disagree with the policy may disclose their opinion. The disclosure begins a two-week period of discussion, which ends with the employee and the organization parting ways they do not arrive at a mutual stance.

InterVarsity will bear one month's worth of outplacement service costs after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to assist employees with their next job search.

In a 20-page internal position paper on human sexuality, InterVarsity discusses its beliefs of a God-given design of marriage, and behaviors they believe stand outside of it, such as premarital sex, sexual promiscuity, and prostitution, as well as sexual abuse, divorce, and homosexuality.

"Scripture is very clear that God's intention for sexual expression is to be between a husband and wife in marriage," the internal position paper says on page 12. "Every other sexual practice is outside of God's plan and therefore is a distortion of God's loving design for humanity."

The document was released in March 2015, and was to be studied for 18 months until November in conjunction with a nine-part study based on it.

The new move by InterVarsity was criticized and hailed by many individuals from both sides of the issue.

"This seems like it really runs counter to their justice stand to be proudly embracing injustice and to be intentionally and actively persecuting a marginalized group within their community," Matthew Vines, author of 'God and Gay Christian' who was also previously active in InterVarsity at Harvard University, told Associated Press.

"When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makes the pages of Time Magazine going into the weekend, you understand what we have been saying for a very long time," Albert Mohler Jr., President of Southern Baptist Seminary in Louisville, said in The Briefing podcast.

Mohler continued: "There is no place to hide. Soon we're all going to know what everyone believes on all of these issues, and Christian institutions, Christian organizations, Christian ministries, and Christian churches, indeed every single Christian will eventually have to give an answer."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Bethel English Church — Pastor Justin Kim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illegible]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Charis Mission Church — Pastor Sung Chang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 Pastor Harold Kim
Sunday Services: 11:30 AM & 12:45 PM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Christian Humanitarian Groups Come to the Aid of Hurricane Matthew Victims

BY CHRISTINE KIM



Residents of Nichols, SC evacuate with the help of the National Guard in the aftermath of Hurricane Matthew. (Photo: The National Guard / CC)

In the wake of the destruction caused by Hurricane Matthew, Christian aid groups have come to provide relief to those affected by the hurricane both in Haiti and in the southeastern states of the United States.

In Haiti, the Category Four storm, with winds of up to 145 miles per hour has killed 400 people, according to a Reuters estimate on October 8.

Officials say at least 20,000 homes have been destroyed,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after the hurricane ripped through the country on Tuesday, October 7.

Those living along the southern coast of Haiti in fishing villages have been severely affected.

Samaritan's Purse, a Christian organization, sent a team in an emergency response with 40 tons of supplies to Haiti, which includes 20 tons of water filters, hygiene kits, and blankets. They have staff on the ground who will distribute those supplies to 5,000 households.

"Our teams are on the ground helping in Jesus' Name. They're going to do all they can to meet the needs of the suffering people there. Please pray for the people of Haiti as they recover from this deadly storm," said president of Samaritan's Purse, Franklin Graham, in a statement.

World Vision, a Christian humanitarian aid organization, had staff in Haiti distribute supplies immediately after the wind and rain abated.

National Director of World Vision John Hasse said in a statement: "There are areas where people haven't eaten much or had access to clean water in days."

According to Christian Today, Hurricane Matthew is the first major hurricane to possibly directly hit the U.S. in over a decade. In light of that, states of emergency have been declared in southeastern states like Florida, North and South Carolina, and Georgia.

Over 1,000 mobile units and 65,000 trained volunteers from the Southern Baptist Disaster Relief (SBDR) were equipped to provide food and other necessities. According to the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SBDR is one of the three largest mobilizers of trained Disaster Relief volunteers in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the American Red Cross and The Salvation Army."

The Billy Graham Rapid Response Team is sending crisis-trained chaplains to offer emotional and spiritual support to those affected by the hurricane in Florida.

As of October 7, two million people have been warned to flee by Florida Gov. Rick Scott, according to the Herald Tribune.

"Don't take a chance. Time is running out. This is clearly going to either have a direct hit or come right along our coast and we're going to have hurricane-force winds. There are no excuses. You need to leave. Evacuate, evacuate, evacuate," he said on Thursday at the 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

Majority of Pastors 'Undecided' on Presidential Candidates, LifeWay Study Shows

A majority of the pastors are undecided on their choice of presidential candidate, according to a new survey conducted by LifeWay Research.

About 40 percent of the pastors said they do not know who they want to vote for. Some 32 percent wanted to vote for Donald Trump, and another 19 percent for Hillary Clinton.

Most of the Pentecostals (61 percent), Baptists (46 percent), and Church of Christ ministers (50 percent) favored Trump.

Clinton had more support among the Methodists (44 percent), and Presbyterians (50 percent).

"Donald Trump does better with pastors than Hillary Clinton," said Scott McConnell, executive director of LifeWay Research. "But both candidates are still less popular than 'Undecide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Protestant pastors (84 percent) support voting and say that it is a biblical responsibility to vote. The Protestant pastors included Pentecostals (98 percent), Baptists (95 percent), Presbyterian (81 percent), and Church of Christ members (79 percent).

Most of the pastors voting for Trump said that nomination of Supreme Court judges (36 percent) was their top priority, followed by abortion (17 percent), and personal character (10 percent).

On the other hand, pastors who wanted to vote for Clinton said that her personal character (28 percent) was most important to them. About 7 percent were considering voting for Clinton because of her immigration policies. Less than 1 percent of the pastors said they would vote for Clinton because of her position on abortion.

According to the survey, most of the African-American pastors (37 percent) sided with Clinton, while 35 percent of the white pastors supported Trump.

Only 1 percent of the pastors have endorsed a political candidate from the pulpit of their churches. However, more pastors (22 percent) have endorsed political candidates outside of their church role. Meanwhile, 77 percent did not endorse any candidate, neither inside the church nor outside.

Democratic (78 percent) and Republican leaning pastors (53 percent) favored their respective party candidates, as expected.

The survey was carried out on 1,000 Protestant senior pastors between August 22 and Septemeber 16.

Asia Bibi's Appeal Against Blasphemy Charges to Be Heard by Pakistan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of Pakistan will be hearing Asia Bibi's final appeal on October 13th. Bibi is a Christian woman who was given the death penalty on alleged charges of blasphemy about six years ago.

In 2009, Bibi was accused of blaspheming by her co-workers in the falsa berry fields where she worked.

According to an ACLJ account, she wanted to serve water to her coworkers, but they thought that the water was rendered impure by her touching the bucket. Bibi was asked to convert to Islam to be purified. She refused and professed her faith publicly.

Five days later, the women who had confronted her over the water incident brought an Islamic cleric with them and alleged that Bibi has insulted Prophet Muhammad. Bibi said she did not do that, but she was subsequently beaten by villagers and taken into custody.

The following year, a local court pronounced her guilty and sentenced her to death, even though she denied the charges against her.

Her appeals were delayed many times. When her case was finally heard by the high court in October 2014, her death sentence was upheld. Later, her petition for a legal review by the Supreme Court was accepted.

Her conviction for blasphemy charges triggered outrage against her among the Islamic radicals, forcing her family to go in hiding. Fundamentalists have threatened that if Bibi is released, they would kill her and her family.

Nat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re urging Pakistan's highest court to release her, while radical Islamic groups are asking the court to put her to death. She is kept in solitary confinement due to concerns about her safety at the hands of other inmates.

Saif ul Malook, Bibi's lawyer, also reported receiving death threats.

Late governor of Punjab Salmaan Taseer was assassinated by a radical Islamist Mumtaz Qadri in 2011 for his publicly-expressed sympathy for Bibi. Qadri was Taseer's own bodyguard. Qadri was hanged for murdering the governor of the state, but his capital punishment sparked protests in Punjab.

Pakistan ranks as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number of blasphemy cases in the world. Both Muslims and non-Muslims have been accused of blasphemy in the past.

Support for the Death Penalty in the U.S., For the First Time in 45 Years, Is Not the Majority

A new survey by Pew Research Center found that for the first time in over four decades American support for the death penalty was no longer shared by a majority.

The poll shows that only 49 percent of Americans now say that capital punishment is justified for people convicted of murder, and only 42 percent oppose it. Support for the death penalty has declined by 7 percent since March 2015 when 56 percent were in favor of it, and 38 percent were against it. In the mid-1990s, support for the death penalty was as high as 80 percent.

The Pew study, which has been tracing public opinion on capital punishment since 1936, shows that the only time opposition to the death penalty was higher than support was in 1966 when 47 percent of the people opposed it and 42 percent were in favor of it. The last time support for the death penalty fell below 50 percent was in 1971.

Republicans (72 percent) are more likely to agree with penalizing murder with death penalty than Democrats (34 percent).

About 20 years ago, both Republicans (87 percent) and Democrats (71 percent) backed the death penalty.

The view on capital punishment was more divided along religious lines as well. There is still a wide support for death penalty among the white evangelical Protestants (69 percent) and white mainline Protestants (60 percent). Catholics were more likely to favor capital punishment (43 percent) than oppose it (46 percent).

About 50 percent of religiously unaffiliated people opposed the death penalty, and only 40 percent supported it.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가을맞이 특별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or 0 Down $169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1,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NEW
2016 HYUNDAI SONATA
Limited Technology
Package

Lease It For $88 +Tax or 0 Down $279 +Tax

All In Stock With
MSRP $33,345



36 Months Closed End Lease, $6,9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new design redefines the compact SUV."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2,0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3,00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